



NABO 경제 동향

NABO Economic Trends

CONTENTS

경제 동향

기술경제 동향 | 달 현지자원 활용: 우리나라 역할과 미래

경제 현안 | 한국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피용자보수 관계



- 「NABO 경제 동향」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02-6788-37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경제 동향」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I 지출

1. 소비	08
2. 투자	10
3. 대외거래	15
4. 소비자물가	18

II 생산·고용·인구

1. 생산	22
2. 고용	33
3. 인구	37

III 금융·자산·재정

1. 국내 금융시장	40
2. 에너지 및 원자재	44
3. 부동산	50
4. 재정	52

IV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58
2. 중국	61
3. 유로지역	63
4. 일본	65
5. 글로벌 금융시장	67

V 기술경제 동향

달 현지지원 활용: 우리나라 역할과 미래	72
------------------------	----

VI 경제 현안

한국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피용자보수 관계	80
-------------------------	----

경제동향 종합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의 회복세는 더딘 모습

대외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반도체 수출의 강한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등으로 소매판매와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 감소로 부진이 지속

- 소매판매(전월대비, %): ('24.2월)-3.2 → (3월)1.1 → (4월)-1.2
- 내구재(전월대비, %): ('24.2월)-3.0 → (3월)2.9 → (4월)-5.8

4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늘어났으나 기계류에서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4.2월)9.6 → (3월)-6.3 → (4월)-0.2

5월 「무역수지」는 수출의 큰 폭 증가, 수입의 감소로 49.6억달러 흑자로 흑자폭 확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3.1 → (4월)13.8 → (5월)11.7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3월)-12.4 → (4월)5.4 → (5월)-2.0
- 무역수지(억달러): ('24.3월)42.9 → (4월)15.3 → (5월)49.6

5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3.1 → (4월)2.9 → (5월)2.7

4월 「생산」은 전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1.1%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5% 증가, 「서비스업 생산」은 2.0% 증가

5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상승

-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0만명 증가한 2,891.5만명으로 증가세 둔화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한 3.0%를 기록

5월 국내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모두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

- 5월 국고채금리는 물가 상승률 둔화 정체 등으로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
 - 국고채(3년) 금리(%): ('24.3월말)3.32 → (4월말)3.53 → (5월말)3.45
- 5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진정 등으로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
 - 원/달러 환율: ('24.3월말)1,347 → (4월말)1,379 → (5월말)1,377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원/달러,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3월	4월	5월
전산업생산	4.6	1.0	1.6	-0.3	1.3	1.3	2.9	0.1	3.1	-
제조업생산	0.9	-2.6	-8.7	-6.2	-0.2	5.1	6.2	0.7	6.5	-
서비스업생산	7.0	3.2	6.3	2.6	2.3	1.8	2.1	0.9	2.0	-
소매판매액	-0.3	-1.5	-0.8 (0.6)	-0.7 (-0.5)	-2.7 (-1.9)	-1.9 (0.4)	-2.1 (-0.5)	-3.4 (1.1)	-2.6 (-1.2)	-
설비투자지수	3.3	-5.4	-1.0 (-8.0)	-0.9 (1.0)	-10.7 (-3.1)	-8.5 (3.1)	-0.7 (-1.2)	-4.5 (-6.3)	-2.3 (-0.2)	-
건설기성액	2.8	7.3	11.5 (2.8)	8.7 (1.1)	10.1 (1.1)	0.6 (-2.5)	4.1 (4.9)	-3.4 (-10.2)	0.8 (5.0)	-
수출(통관)	6.1	-7.5	-12.8	-12.0	-9.7	5.7	8.3	3.1	13.8	11.7
수입(통관)	18.9	-12.1	-2.2	-13.2	-21.6	-10.7	-11.1	-12.4	5.4	-2.0
경상수지(억달러)	258.3	354.9	-59.6	71.1	156.0	187.4	168.4	69.3	-2.9	-
소비자물가	5.1	3.6	4.6	3.3	3.1	3.4	3.0	3.1	2.9	2.7
취업자수 증감(천명)	816	327	397	346	263	303	285	380	329	173
실업률	2.9	2.7	3.2	2.7	2.3	2.6	3.3	3.7	3.2	3.0
원/달러환율	1,292	1,305	1,304	1,313	1,345	1,289	1,347	1,347	1,379	1,377
국고채금리(3년)	3.20	3.57	3.27	3.66	3.88	3.15	3.32	3.32	3.53	3.45

주: 1.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

지출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 감소로 전월대비 감소

- 소매판매(전월대비, %): ('24.2월)-3.2 → (3월)1.1 → (4월)-1.2
- 내구재(전월대비, %): ('24.2월)-3.0 → (3월)2.9 → (4월)-5.8
- 준내구재(전월대비, %): ('24.2월)1.7 → (3월)-3.5 → (4월)0.5
- 비내구재(전월대비, %): ('24.2월)-4.8 → (3월)1.8 → (4월)0.4

4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늘어났으나 기계류에서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4.2월)9.6 → (3월)-6.3 → (4월)-0.2

4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모두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4.2월)-0.7 → (3월)-10.2 → (4월)5.0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4.2월)-0.6 → (3월)-11.2 → (4월)6.1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4.2월)-0.9 → (3월)-6.9 → (4월)1.7

5월 「무역수지」는 49.6억달러 흑자로 흑자폭 확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3.1 → (4월)13.8 → (5월)11.7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3월)-12.4 → (4월)5.4 → (5월)-2.0
- 무역수지(억달러): ('24.3월)42.9 → (4월)15.3 → (5월)49.6

5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3.1 → (4월)2.9 → (5월)2.7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4.0 → (4월)3.8 → (5월)3.2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2.3 → (4월)2.2 → (5월)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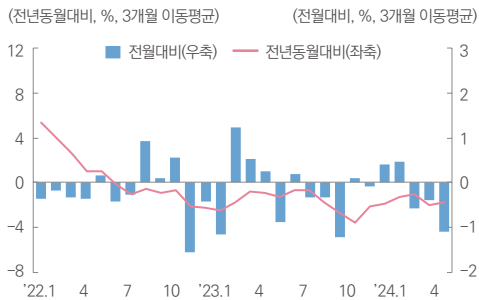
1 소비

4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의 감소로 부진이 지속됨.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가 늘었으나 내구재 판매의 감소로 전월대비 1.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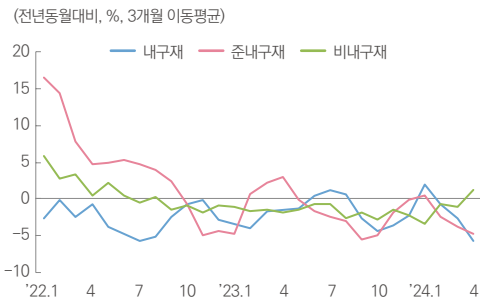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월대비, %): ('24.2월)-3.2 → (3월)1.1 → (4월)-1.2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4.2월)-3.7 → (3월)0.0 → (4월)0.2

| 그림 1 |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2 | 내구연한별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내구재는 승용차,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5.8% 감소

- 내구재(전월대비, %): ('24.2월)-3.0 → (3월)2.9 → (4월)-5.8
- 승용차(전월대비, %): ('24.2월)3.1 → (3월)11.6 → (4월)-13.2
- 가전제품(전월대비, %): ('24.2월)-6.6 → (3월)-2.6 → (4월)9.2
- 통신기기 및 컴퓨터(전월대비, %): ('24.2월)-16.1 → (3월)-3.9 → (4월)-4.7

■ 준내구재는 의복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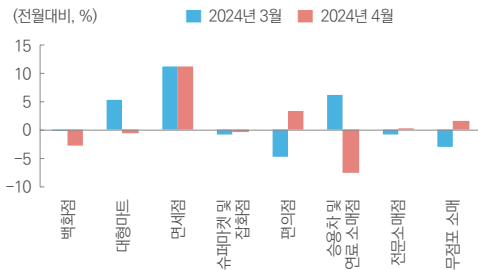
- 준내구재(전월대비, %): ('24.2월)1.7 → (3월)-3.5 → (4월)0.5
- 의복(전월대비, %): ('24.2월)2.3 → (3월)-4.5 → (4월)0.9
- 오락·취미·경기용품(전월대비, %): ('24.2월)-3.6 → (3월)-3.1 → (4월)-0.4

■ 비내구재는 음식료품이 감소하였으나 화장품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4% 증가

- 비내구재(전월대비, %): ('24.2월)-4.8 → (3월)1.8 → (4월)0.4
- 음식료품(전월대비, %): ('24.2월)-5.2 → (3월)3.7 → (4월)-0.5
- 화장품(전월대비, %): ('24.2월)-19.8 → (3월)3.0 → (4월)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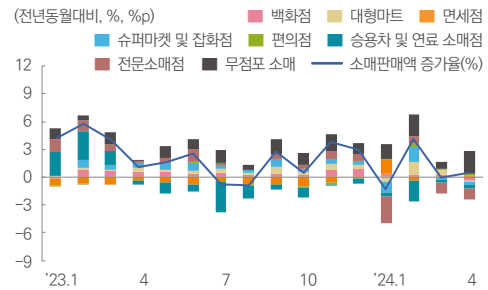
- 소매업태별로는 백화점(-2.8%), 대형마트(-0.6%),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7.6%)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면세점(11.3%), 편의점(3.4%), 무점포 소매(1.5%) 등에서 전월대비 증가

| 그림 3 | 업태별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 | 업태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기여도



주: 소매판매액증가율은 경상금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고 각 업태 별은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2.3p 하락한 98.4를 기록

- 가계수입전망(97, -2p), 생활형편전망(92, -2p) 등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전반에서 하락하여 전월대비 2.3p하락

• 소비자심리지수: ('24.3월)100.7 → (4월)100.7 → (5월)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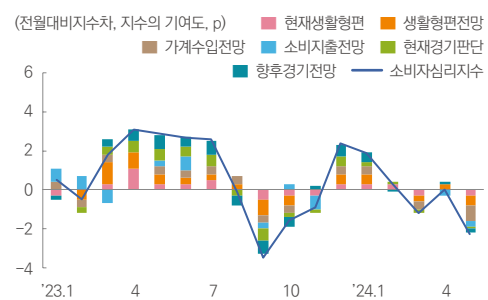
| 그림 5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그림 6 | 소비자심리지수 기여도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지수차(p)이고 각 구성 항목은 지수의 기여도(p)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투자

가.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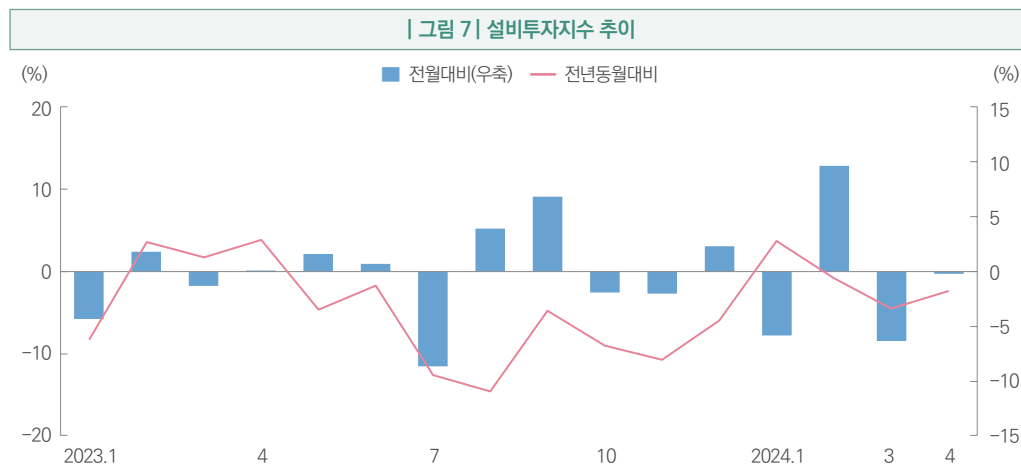
4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0.3%)에서 늘어났으나 기계류(-0.4%)에서 감소하며 전월대비 0.2%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4.2월)9.6 → (3월)-6.3 → (4월)-0.2
- 기계류(전월대비, %): ('24.2월)5.2 → (3월)-7.7 → (4월)-0.4
- 운송장비(전월대비, %): ('24.2월)24.2 → (3월)-2.7 → (4월)0.3

■ 전년동월대비로는 운송장비(3.9%)에서 늘어났으나 기계류(-4.3%)에서 줄어들며 2.3% 감소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4.2월)-0.8 → (3월)-4.5 → (4월)-2.3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4.2월)0.0 → (3월)-7.3 → (4월)-4.3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4.2월)-3.0 → (3월)4.4 → (4월)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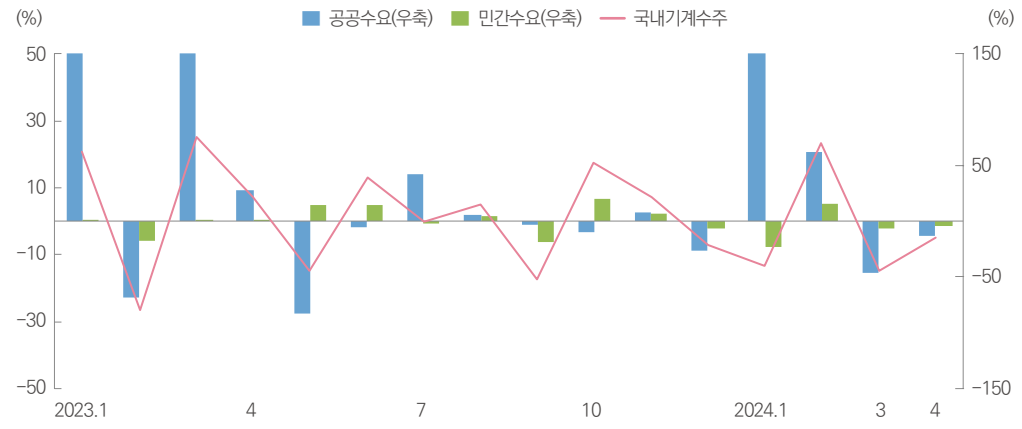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4월 중 주요 선행지표인 「기계류 내수출하」는 증가,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액」은 감소

■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3.8%)과 공공부문(-12.7%)에서 모두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5.0% 감소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4.2월)23.3 → (3월)-15.0 → (4월)-5.0
- 공공부문(전월대비, %): ('24.2월)61.6 → (3월)-46.1 → (4월)-12.7
- 민간부문(전월대비, %): ('24.2월)16.0 → (3월)-6.8 → (4월)-3.8

| 그림 8 |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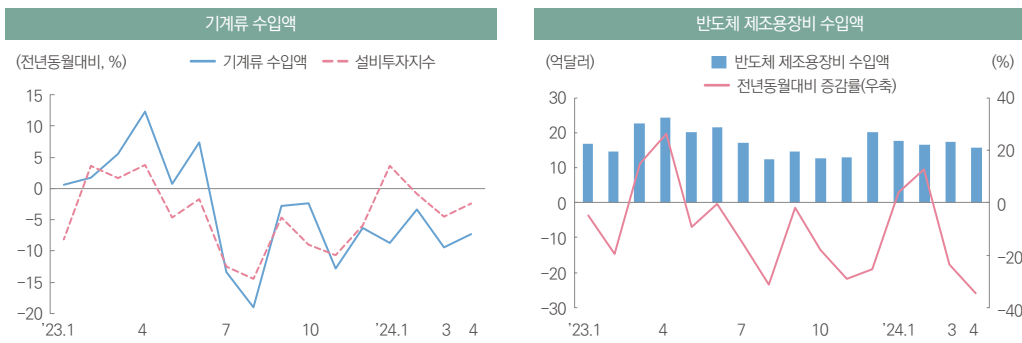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1.5% 증가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4.2월)2.8 → (3월)-7.8 → (4월)1.5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제조용장비(-34.7%), 항공기 및 부품(-27.2%)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7.3% 감소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4.2월)-3.4 → (3월)-9.5 → (4월)-7.3

| 그림 9 |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자료: 무역협회

나.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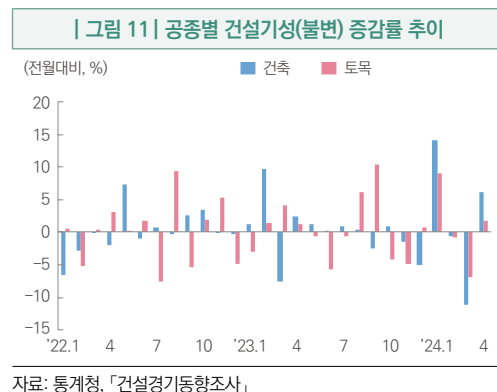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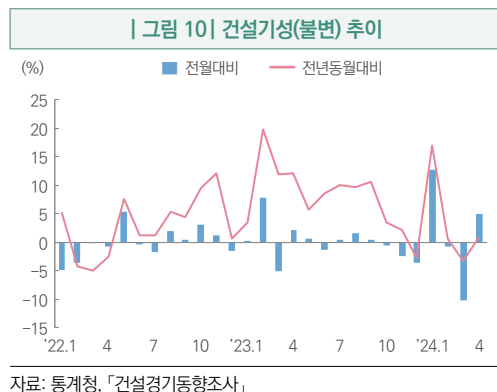
4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모두 증가 전환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1%)과 토목(1.7%)의 실적 모두 증가하여 전월대비 5.0%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4.2월)-0.7 → (3월)-10.2 → (4월)5.0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4.2월)-0.6 → (3월)-11.2 → (4월)6.1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4.2월)-0.9 → (3월)-6.9 → (4월)1.7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소폭의 증가를 보임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4.2월)0.7 → (3월)-3.4 → (4월)0.8



4월 「건설기성(경상)」도 건축과 토목 모두 증가

■ 건설기성(경상)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 건설(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2.9 → (3월)-1.7 → (4월)2.5

■ 건축부문(경상)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0.4 → (3월)-2.8 → (4월)2.2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0.1 → (3월)-1.8 → (4월)1.7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1.3 → (3월)-4.7 → (4월)3.1

1) 건설기성액의 세부항목에 대한 불변금액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 공정에 대한 동향은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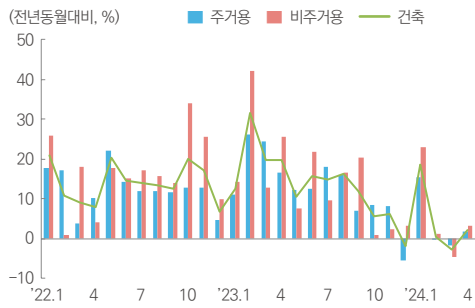
■ 토목부문(경상)은 전기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목 공사가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12.2 → (3월)1.6 → (4월)3.8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17.8 → (3월)-7.7 → (4월)2.1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25.8 → (3월)-33.6 → (4월)-31.5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12.9 → (3월)19.7 → (4월)9.7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을 살펴보면 민간기관은 증가하였으나 공공기관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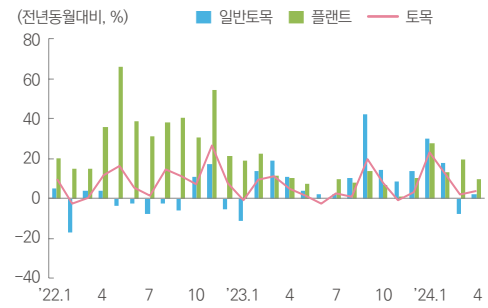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5.2 → (3월)-11.2 → (4월)-0.5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4.2 → (3월)0.7 → (4월)3.4

| 그림 12 |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3 |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4월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 모두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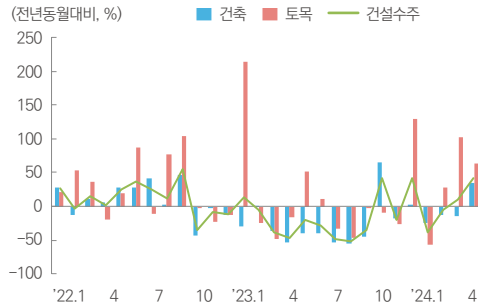
■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41.9% 증가

- 건축 수주는 주택(70.5%)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4.4% 증가
- 토목 수주는 기계설치(93.8%)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3.8% 증가
- 건설수주(경상, 전년동월대비, %): ('24.2월)-4.7 → (3월)10.2 → (4월)41.9

■ 발주처별로는 공공 및 민간부문 수주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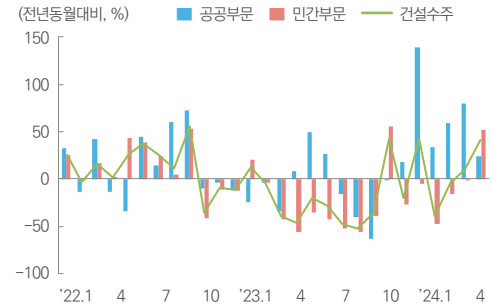
- 민간부문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51.8% 증가하였고 공공부문 수주도 24.2% 증가

| 그림 14 |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5 |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3 ▶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5월 「무역수지」는 49.6억달러 흑자로 흑자폭 확대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한 581.5억달러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3.1 → (4월)13.8 → (5월)11.7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4.3월)25.1 → (4월)24.5 → (5월)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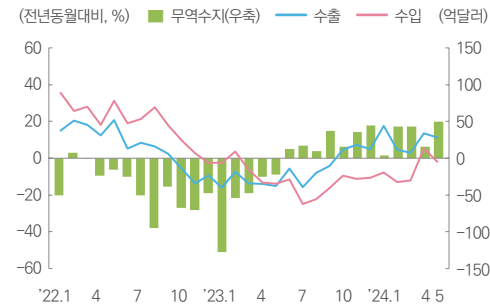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한 531.9억달러를 기록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3월)-12.4 → (4월)5.4 → (5월)-2.0
- 일평균수입액(억달러): ('24.3월)23.2 → (4월)23.8 → (5월)24.2

■ 무역수지는 49.6억달러로 1년 연속 흑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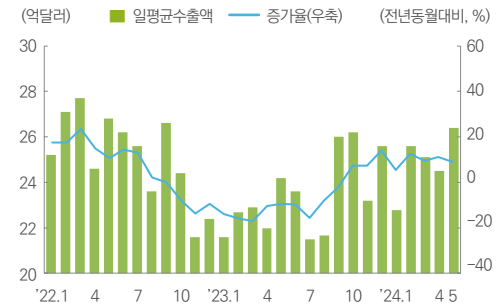
- 무역수지(억달러): ('24.3월)42.9 → (4월)15.3 → (5월)49.6

| 그림 16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그림 17 | 일평균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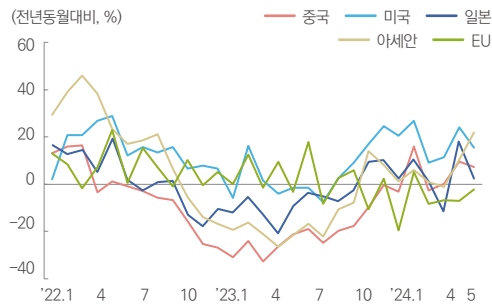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

■ 대미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대중 수출도 3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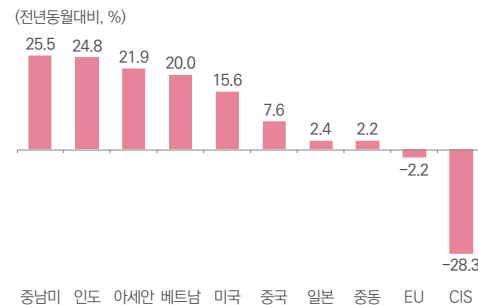
-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0.3 → (4월)9.9 → (5월)7.6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11.4 → (4월)24.3 → (5월)15.6
- 대일본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11.7 → (4월)18.4 → (5월)2.4
- 대아세안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1.2 → (4월)10.5 → (5월)21.9
- 대EU(27)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6.8 → (4월)-7.1 → (5월)-2.2
- 대중동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15.2 → (4월)1.1 → (5월)2.2
- 대중남미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14.2 → (4월)38.2 → (5월)25.5
- 대베트남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4.4 → (4월)21.4 → (5월)20.0

| 그림 18 |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그림 19 | 5월 중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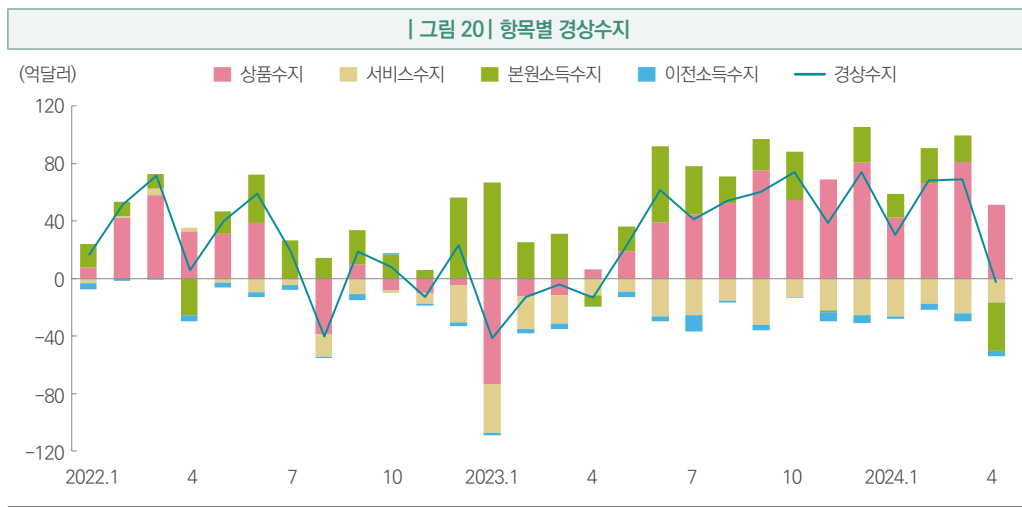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나. 경상수지

4월 「경상수지」는 2.9억달러 적자 기록

- 경상수지는 전년동월 -13.7억달러보다 10.8억달러 증가한 -2.9억달러 기록
 - 경상수지(억달러): ('24.2월)68.6 → (3월)69.3 → (4월)-2.9
- 상품수지는 51.1억달러로 전년동월 6.1억달러보다 45.0억달러 증가
 - 상품수지(억달러): ('24.2월)66.1 → (3월)80.9 → (4월)51.1
 - 일반상품수지(억달러): ('24.2월)51.8 → (3월)66.9 → (4월)40.6
 - 중계무역순수출(억달러): ('24.2월)14.6 → (3월)15.7 → (4월)13.6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로 16.6억달러 적자 기록
 - 서비스수지(억달러): ('24.2월)-17.7 → (3월)-24.3 → (4월)-16.6
 - 운송수지(억달러): ('24.2월)1.8 → (3월)-1.2 → (4월)-1.4
 - 여행수지(억달러): ('24.2월)-13.6 → (3월)-10.7 → (4월)-8.2
- 본원소득수지는 전년동월 -7.4억달러보다 26.3억달러 감소한 -33.7억달러 기록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4.2월)24.4 → (3월)18.3 → (4월)-33.7
 - 투자소득수지(억달러): ('24.2월)25.9 → (3월)20.8 → (4월)-31.6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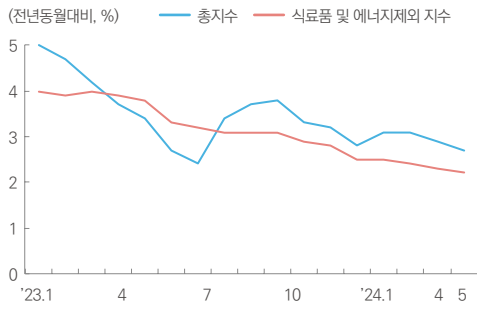
4 소비자물가

5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는 상품(3.2%), 서비스(2.3%)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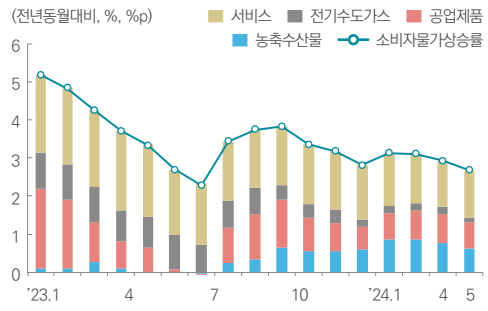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3.1 → (4월)2.9 → (5월)2.7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4.0 → (4월)3.8 → (5월)3.2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2.3 → (4월)2.2 → (5월)2.3
- 근원물가상승률²⁾(전년동월대비, %): ('24.3월)2.4 → (4월)2.3 → (5월)2.2

| 그림 21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22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19.0%) 품목을 중심으로 8.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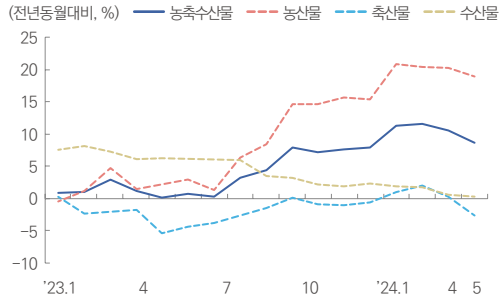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11.7 → (4월)10.6 → (5월)8.7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20.5 → (4월)20.3 → (5월)19.0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2.1 → (4월)0.3 → (5월)-2.6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1.7 → (4월)0.4 → (5월)0.1

■ 공업제품 물가는 석유류(3.1%) 가격이 재상승하고 가공식품(2.0%)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1% 상승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2.2 → (4월)2.2 → (5월)2.1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1.4 → (4월)1.6 → (5월)2.0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1.2 → (4월)1.3 → (5월)3.1
- 국제유가(3개유종평균, 달러/배럴): ('24.3월)84.7 → (4월)89.4 → (5월)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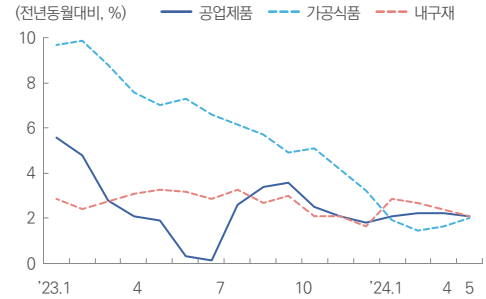
2) 근원물가상승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 그림 23 |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24 |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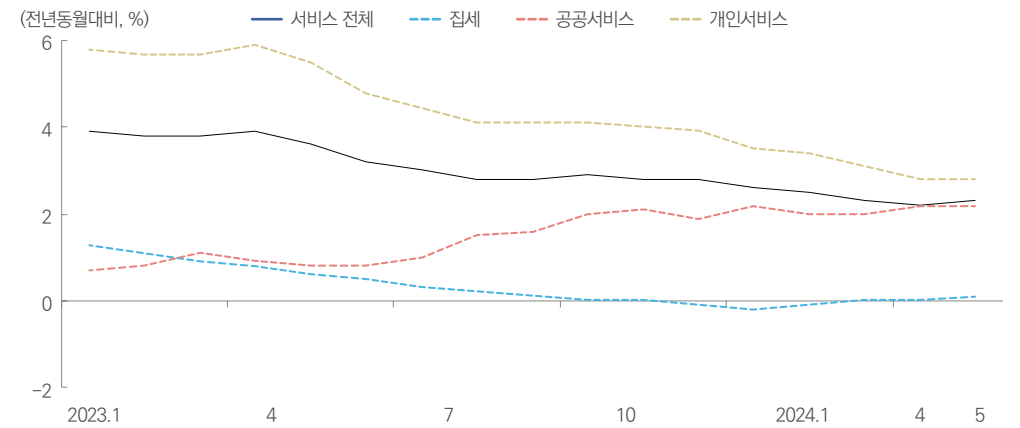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2.3%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2.3 → (4월)2.2 → (5월)2.3
- 집세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0.0 → (4월)0.0 → (5월)0.1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2.0 → (4월)2.2 → (5월)2.2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3.1 → (4월)2.8 → (5월)2.8

| 그림 25 |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생산·고용·인구

4월 「생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1.1%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4.2월)1.8 → (3월)0.1 → (4월)3.1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4.2월)1.3 → (3월)-2.3 → (4월)1.1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조선, 일반기계, 자동차, 화학, 석유 등의 생산이 늘어 6.5%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4.2월)4.9 → (3월)0.7 → (4월)6.5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2.0%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4.2월)1.0 → (3월)0.9 → (4월)2.0

5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11대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선, 석유, 화학, 컴퓨터·주변장치,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이 증가하며 16.6%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4.2월)9.4 → (3월)8.3 → (4월)17.4 → (5월)16.6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4.2월)-4.4 → (3월)9.5 → (4월)-2.7 → (5월)4.3
- 품목별로는 조선(108.4%), 반도체(54.5%), 컴퓨터·주변장치(26.7%), 석유(8.4%), 화학(7.4%), 자동차(2.4%) 등은 증가, 일반기계(-1.5%), 철강(-11.9%) 등은 감소

4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이어 하락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4.2월)0.2 → (3월)-0.3 → (4월)-0.2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4.2월)0.2 → (3월)-0.1 → (4월)0.1

5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상승

-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0만명 증가한 2,891.5만명으로 증가세 둔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한 3.0%를 기록
 - 제조업·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은 하락 전환
 -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15~29세 및 40대 취업자 수는 하락세 심화

5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12만명 감소

-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자연증가」는 3월 기준 53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 3월 기준 「혼인건수」는 전년동월대비 5.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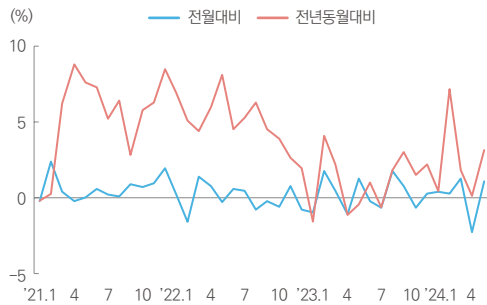
1 생산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4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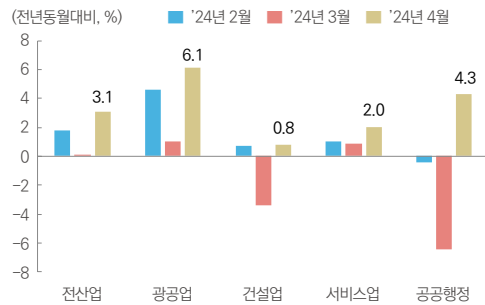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의 생산이 모두 늘며 3.1%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공공행정은 줄었으나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늘며 1.1%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4.2월)1.8 → (3월)0.1 → (4월)3.1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4.2월)1.3 → (3월)-2.3 → (4월)1.1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광공업(6.1%), 건설업(0.8%), 서비스업(2.0%), 공공행정(4.3%)은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공공행정(-0.9%)은 생산이 감소, 광공업(2.2%), 건설업(5.0%), 서비스업(0.3%) 등은 생산이 증가

| 그림 1 |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2 |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4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컴퓨터·주변장치(-21.2%), 철강(-4.6%), 무선통신기기(-1.9%)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22.3%), 조선(4.9%), 일반기계(4.6%), 자동차(3.4%), 화학(2.7%), 석유(1.9%) 등의 생산이 늘어 6.5%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4.2월)4.9 → (3월)0.7 → (4월)6.5
- 전월대비: 조선(11.5%), 자동차(8.1%), 무선통신기기(7.6%), 화학(6.4%), 섬유(6.1%), 석유(3.4%), 일반기계(2.9%)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컴퓨터·주변장치(-23.8%), 반도체(-4.4%), 철강(-0.1%) 등의 생산이 줄어 2.8% 증가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4.2월)3.1 → (3월)-3.3 → (4월)2.8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3			2024			
	1월	2월	12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95.5	111.5	103.5	100.2	112.3	110.2	2.8
제조업	-6.7	-5.9	-8.6	4.9	0.7	6.5	
반도체	-38.0	-22.2	-21.3	65.4	30.2	22.3	-4.4
자동차	27.0	27.5	16.7	-11.6	-9.2	3.4	8.1
화학	-15.5	-18.9	-19.2	-5.7	-4.5	2.7	6.4
일반기계	8.5	5.4	-5.2	-10.3	-6.9	4.6	2.9
철강	-2.2	0.2	-0.9	-3.6	-6.8	-4.6	-0.1
석유	0.3	1.1	-0.8	6.6	-1.6	1.9	3.4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4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업(-0.6%), 숙박·음식점업(-2.4%), 부동산업(-0.2%), 교육서비스업(-1.1%) 등은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업(13.1%), 정보통신업(6.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1%), 금융·보험업(1.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0.4%) 등이 늘어 2.0%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4.2월)1.0 → (3월)0.9 → (4월)2.0
- 전월대비: 숙박·음식점업(-2.1%), 부동산업(-1.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5%) 등은 줄었으나, 도소매업(1.7%), 운수창고업(1.3%), 정보통신업(0.8%), 금융·보험업(0.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0.9%), 교육서비스업(0.9%) 등은 늘어 0.3%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4.2월)0.7 → (3월)-1.1 → (4월)0.3

|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3			2024			
	1월	2월	12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8.5	117.6	113.4	109.6	118.6	115.7	0.3
서비스업	8.9	6	2.7	1	0.9	2	
도매 및 소매	7.8	0.8	-3.7	-5.2	-6.1	-0.6	1.7
숙박 및 음식점	23	18.1	2.3	-4.3	-1.2	-2.4	-2.1
금융 및 보험	15.1	9.3	10.4	2.1	3.2	1.3	0.5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5월 중 주요 11대 산업³⁾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조선(108.4%), 반도체(54.5%), 자동차(2.4%) 등은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1.5%), 철강(-11.9%) 등은 줄어 16.6%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4.2월)9.4 → (3월)8.3 → (4월)17.4 → (5월)16.6
- 주요 11대 산업 중 4개 IT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장치, 무선통신기기) 모두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9대 지역 중 EU, CIS를 제외한 7개 지역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미 수출이 역대 5월 중 최대치인 109.3억 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증가

- 전월대비: 조선(20.5%), 반도체(14.3%), 철강(3.7%) 등의 수출은 늘었으나, 자동차(-4.8%), 화학(-4.7%) 등은 줄어 4.3%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4.2월)-4.4 → (3월)9.5 → (4월)-2.7 → (5월)4.3

| 표 3 |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3				2024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5월*	전월대비
11대 산업	-11.5	-17.2	-17.2	-18.7	9.4	8.3	17.4	-2.7	16.6	4.3
반도체	-42.4	-34.5	-41	-36.2	66.6	35.8	56.1	-14.7	54.5	14.3
자동차	36.3	39.1	27.5	33.2	-6.6	-5.5	8.5	8.3	2.4	-4.8
화학	-18.3	-24.6	-23.6	-26.7	-2.7	-1.8	12.3	6	7.4	-4.7
일반기계	12.9	-0.9	7.2	1.5	1.1	-10.3	1.5	8.7	-1.5	-5.9
철강	-9.9	-10.9	-10.9	-8.9	-10.1	-7.9	-5.7	-2.2	-11.9	3.7
조선	-10.6	-29.7	59	-49.6	27.9	101.9	5.6	-19.9	108.4	20.5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수출은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54.5%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24.5월)73.7(-36.2%) → ('24.5월)113.8(54.5%)
-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23.5월)34.1(-53.1%) → ('24.5월)68.6(101.0%)
- 낸드(8Gb) 고정가(달러): ('23.5월)1.4 → ('23.12월)1.7 → ('24.5월)2.1

3)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 자동차 수출은 해외부품 시장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와 SUV 등 고부가가치 완성차의 판매 확대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3.5월)81.3(33.2%) → ('24.5월)83.3(2.4%)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3.5월)61.9(49.2%) → ('24.5월)64.9(4.8%)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3.5월)19.4(-0.8%) → ('24.5월)18.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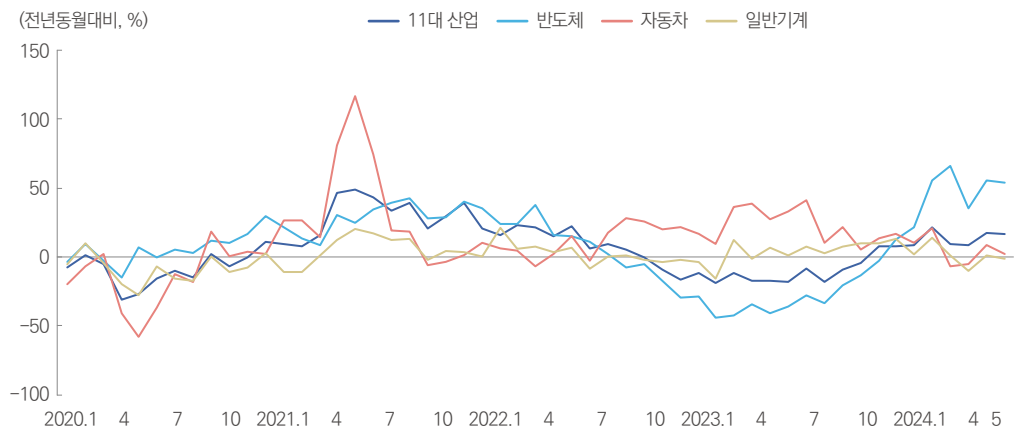
■ 일반기계 수출은 글로벌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주요 수출시장인 EU·중국 등에서 제조업 투자가 위축되며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3.5월)44.7(1.5%) → ('24.5월)44.0(-1.5%)

■ 화학 수출은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량 증가, 해외(아세안 등)의 생산시설 정기보수로 수출 여건 개선,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세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7.4% 증가

- 화학 수출단가(달러/톤)/증감률: ('23.5월)1,305 → ('24.5월)1,257e(-3.7%)
- 화학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3.5월)38.1(-26.7%) → ('24.5월)40.9(7.4%)

그림 3 |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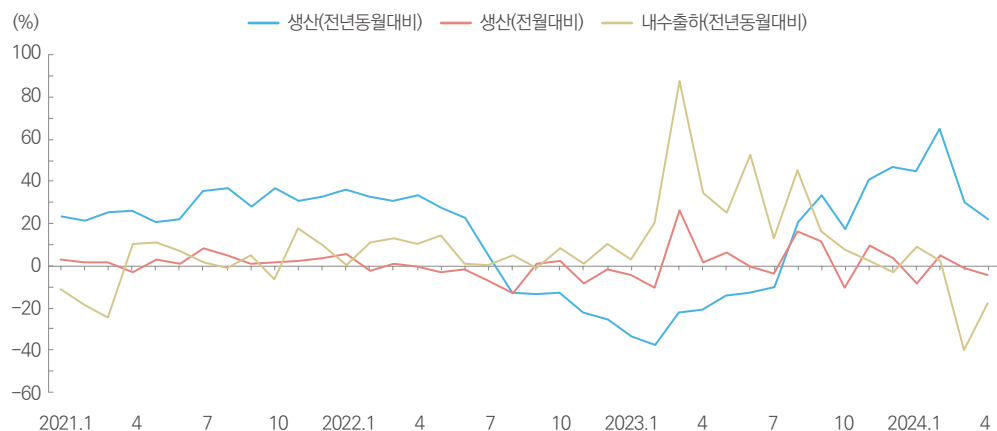
나. 제조업 생산

반도체: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유지, 전월대비로는 감소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감소, 전월대비로는 -4.4%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4.2월)65.4 → (3월)30.2 → (4월)22.3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4.2월)4.9 → (3월)-0.9 → (4월)-4.4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4.2월)2.3 → (3월)-40.5 → (4월)-18.0

| 그림 4 | 반도체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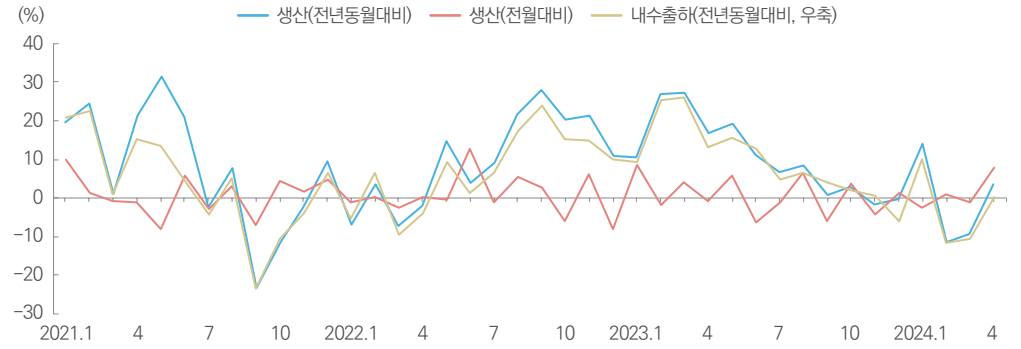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동차: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전월대비로는 8.1%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4.2월)-11.6 → (3월)-9.2 → (4월)3.4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4.2월)1.1 → (3월)-1.2 → (4월)8.1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4.2월)-11.7 → (3월)-10.6 → (4월)0.3

| 그림 5 | 자동차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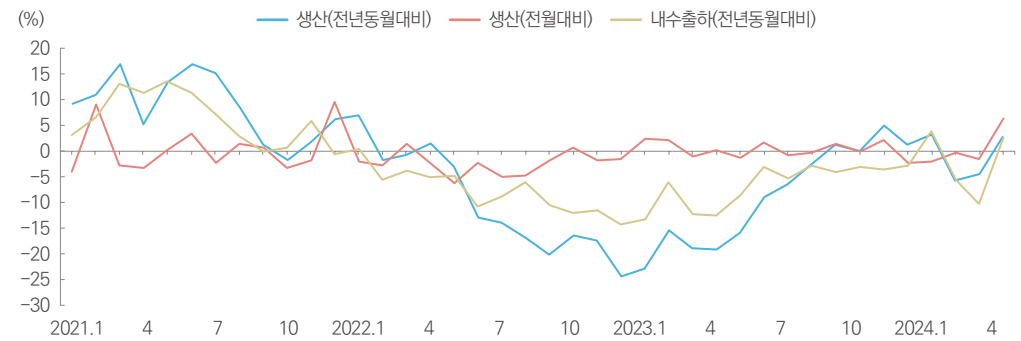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화학 산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4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5.2%), 기타 화학제조업(4.6%),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4.2%)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이는 2023년 4월 국내 화학산업 생산이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 증설로 인해 전년동월(2022년 4월) 대비 19.2% 감소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 전월대비로 6.4% 증가하였는데, 기타 화학제품(6.4%)의 경우 면세점을 통한 화장품 판매 증가와 페인트의 전방산업 수요 증가에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2월) -5.7 → (3월) -4.5 → (4월) 2.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4.2월) -0.2 → (3월) -1.5 → (4월) 6.4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2월) -5.6 → (3월) -10.3 → (4월) 2.8

| 그림 6 | 화학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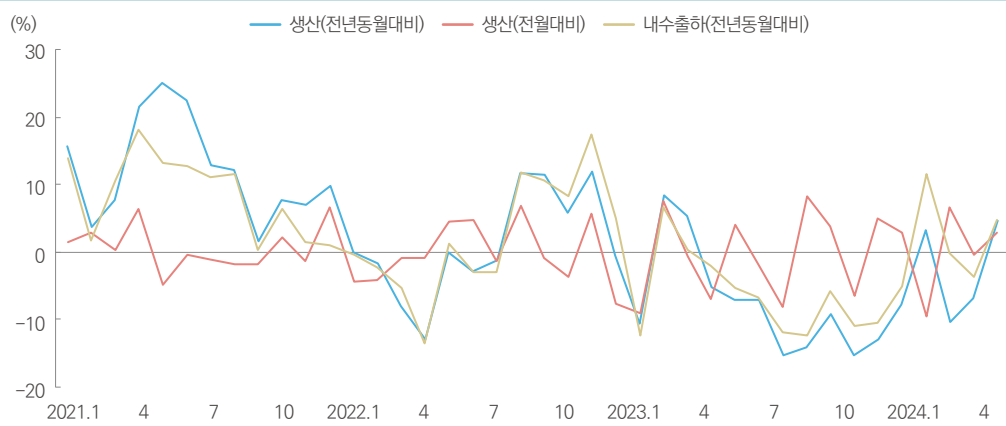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일반기계: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4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전월대비로는 2.9%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4.2월)-10.3 → (3월)-6.9 → (4월)4.6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4.2월)6.7 → (3월)-0.3 → (4월)2.9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4.2월)-0.2 → (3월)-3.8 → (4월)4.7

| 그림 7 |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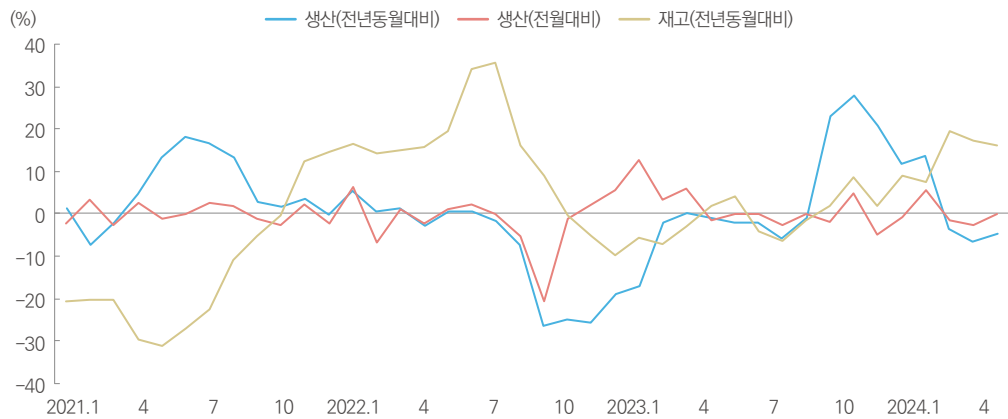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철강: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6% 감소, 전월대비로는 0.1% 소폭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4.2월)-3.6 → (3월)-6.8 → (4월)-4.6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4.2월)-1.5 → (3월)-2.5 → (4월)-0.1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4.2월)19.6 → (3월)17.1 → (4월)16.1

| 그림 8 |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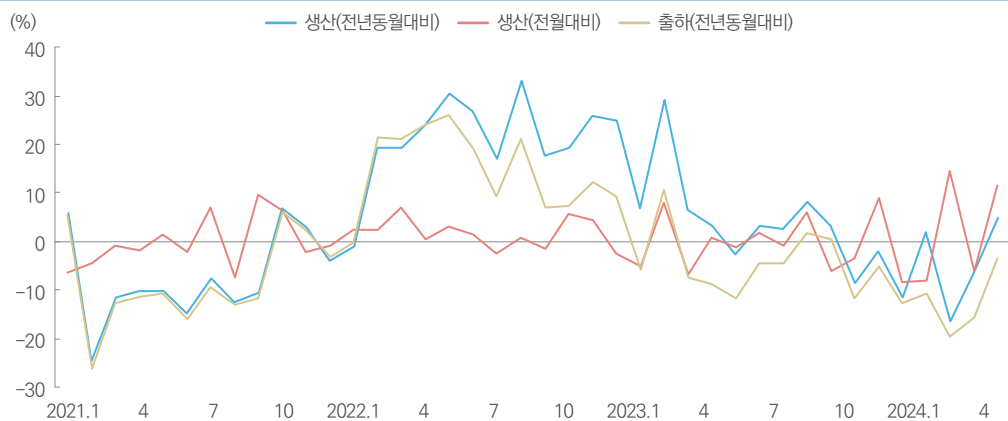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선: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9% 감소, 전월대비로는 11.5%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4.2월)-16.6 → (3월)-6.6 → (4월)4.9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4.2월)14.5 → (3월)-6.0 → (4월)11.5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4.2월)-19.5 → (3월)-15.6 → (4월)-3.5

| 그림 9 | 조선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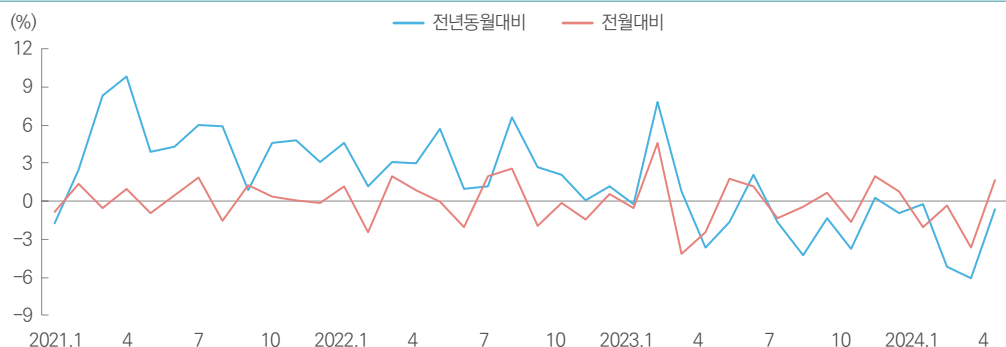
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소매업(-3.3%)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음식료품(-21.4%), 기타 생활용품(-9.7%),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6.7%), 섬유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5.3%)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한 데 기인
- 전월대비로 1.7% 증가하였는데,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포함한 생활용품 도매업(6.4%), 건축자재 도매업(5.8%),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3.8%)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한 데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2월)-5.2 → (3월)-6.1 → (4월)-0.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4.2월)-0.3 → (3월)-3.7 → (4월)1.7

| 그림 10 |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금융 및 보험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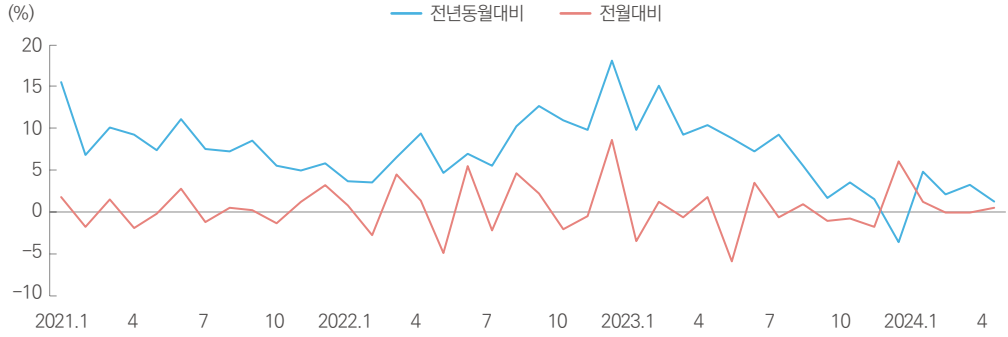
■ 금융업(1.8%), 보험 및 연금업(7.3%)을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카드사와 할부금융업 등 기타 금융업(6.4%)을 중심으로 카드론이 증가⁴⁾하면서 수익이 늘어난 데 기인
- 전월대비로는 0.5% 증가하였는데,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⁵⁾에 따른 은행의 수익 증가에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2월)2.1 → (3월)3.2 → (4월)1.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4.2월)-0.1 → (3월)0.0 → (4월)0.5

4) '신용카드(BC카드, 회원사 및 NH농협카드 포함) 이용실적'에 따르면 2024년 4월 카드론 잔액은 약 4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하였고, 이중 대환대출 잔액이 1.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6% 증가

5) 은행의 가계대출: ('24.2월) 1.9% → (3월) -1.7% → (4월) 5.1% (잔액: 1,103.6조원)
은행의 기업대출: ('24.2월) 8.0% → (3월) 10.4% → (4월) 11.9% (잔액: 1,284.6조원)

| 그림 11 |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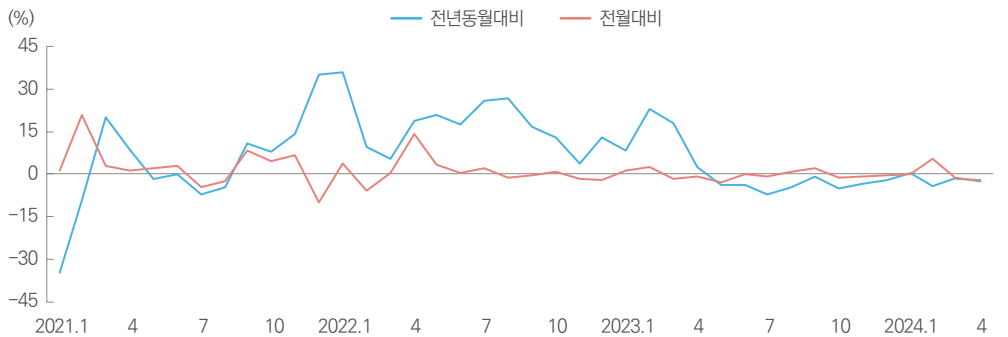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숙박 및 음식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음식점업(-3.2%)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 높은 물가로 인한 소비회복 지연과 식자재⁶⁾, 공공요금 등 비용 증가에 기인
- 전월대비로 2.1% 감소하였는데, 숙박업(-2.9%)의 부진에 주로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2월)-4.3 → (3월)-1.2 → (4월)-2.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4.2월)5.3 → (3월)-1.9 → (4월)-2.1

| 그림 12 | 숙박 및 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6) 식재료원가지수는 2024년 1분기 141.93으로 전기에 비해 0.01p 증가하였다. 이는 1분기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착황부진에 기인하며 이런 추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2024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1분기')

라. 경기종합지수

4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이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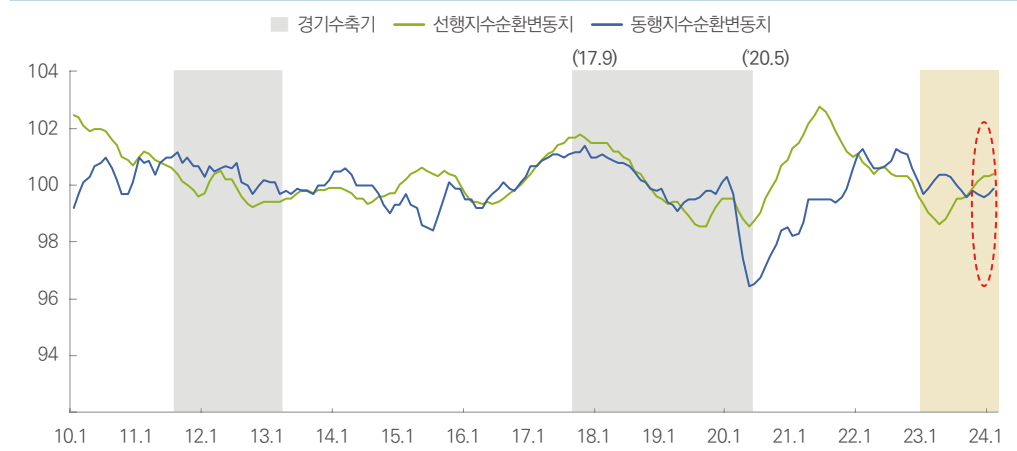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99.4)는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등에서 감소하며 전월대비 0.2p 하락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4.2월)0.2 → (3월)-0.3 → (4월)-0.2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0.4)는 코스피, 경제심리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1p 상승 전환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4.2월)0.2 → (3월)-0.1 → (4월)0.1

| 그림 13 |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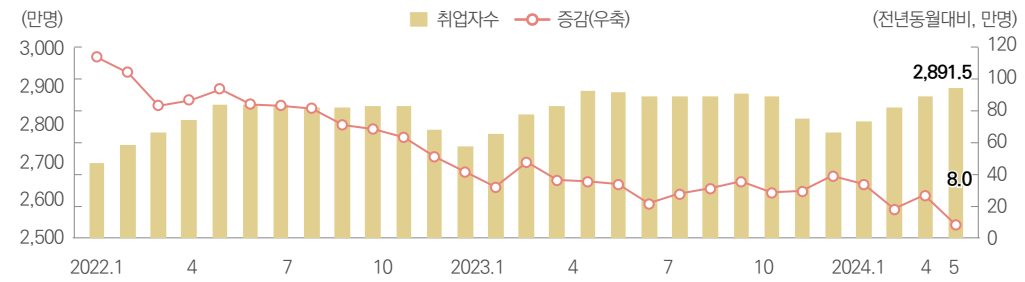
2 고용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0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 5월 취업자 수는 2,891.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만명 증가하여 증가세 둔화,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11.7만명 하락

-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17.3 → (4월)26.1 → (5월)8.0
- 계절조정 취업자 수(전월대비, 만명): ('24.3월)-11.9 → (4월)7.3 → (5월)-11.7

| 그림 14 | 전체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5.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24.3월)64.3 → (4월)65.0 → (5월)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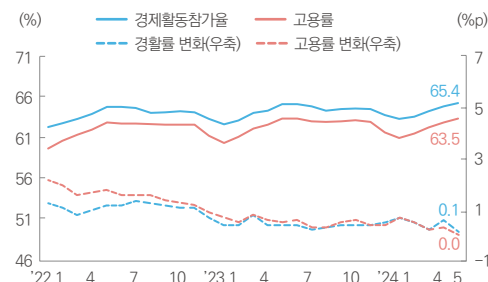
■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3.5%로 전년동월과 동일

- 고용률(%): ('24.3월)62.4 → (4월)63.0 → (5월)63.5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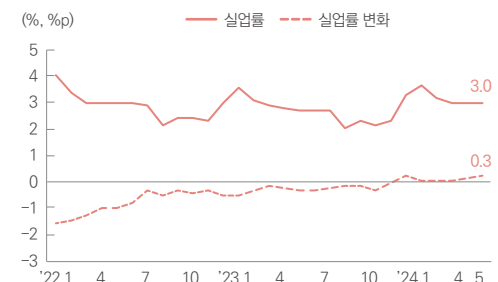
- 실업률(%): ('24.3월)3.0 → (4월)3.0 → (5월)3.0

| 그림 15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16 | 실업률 추이



5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건설업에서 하락, 제조업·서비스업에서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8만명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4.9 → (4월)10.0 → (5월)3.8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6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 서비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14.3 → (4월)13.9 → (5월)11.6
-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되는 가운데,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하락세 유지

■ 건설업 취업자 수는 4.7만명 감소하여 8개월만에 하락 전환

- 건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2.2 → (4월)0.6 → (5월)-4.7

5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의 증가세 유지되는 가운데 15~29세 및 40대는 하락세 심화

■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5만명 증가하여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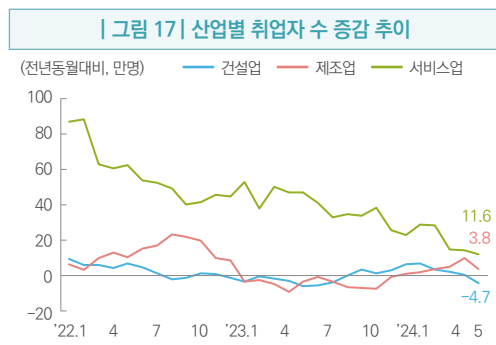
- 고령층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23.3 → (4월)29.2 → (5월)26.5

■ 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3만명 감소하여 하락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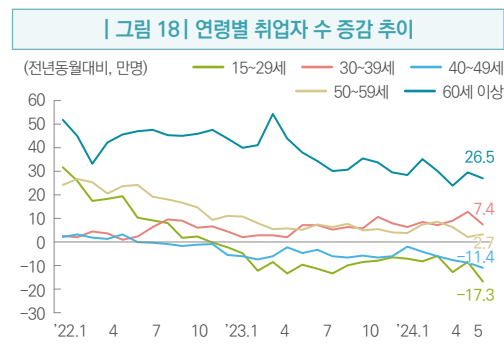
- 15~29세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13.1 → (4월)-8.9 → (5월)-17.3

■ 30대와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하락폭 확대

- 3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9.1 → (4월)13.2 → (5월)7.4
- 4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7.9 → (4월)-9.0 → (5월)-11.4
- 5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5.9 → (4월)1.6 → (5월)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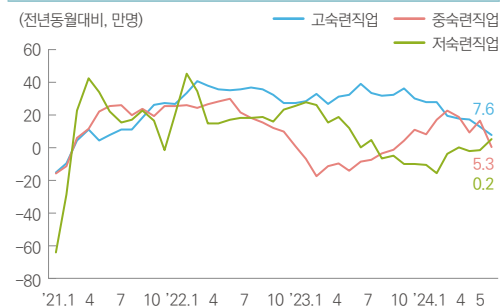
5월 「직업별 취업자 수」⁷⁾는 모든 숙련 단위 직업 취업자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고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6만명 증가하였으며 '21년 3월 이후 39개월째 증가세 유지**
 - 고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17.3 → (4월)12.7 → (5월)7.6
- **중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2만명 증가하였으며 9개월째 증가세 유지**
 - 중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9.1 → (4월)16.8 → (5월)0.2
- **저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3만명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
 - 저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2.2 → (4월)-1.2 → (5월)5.3

5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는 상용 및 임시근로자는 증가, 일용 및 비임금 근로자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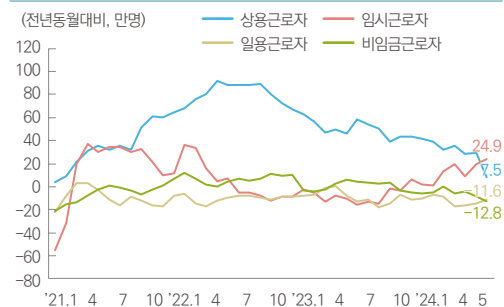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0.8만명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취업자수가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감소하는 모습**
 -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28.6 → (4월)29.3 → (5월)7.5
 -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9.7 → (4월)19.9 → (5월)24.9
 -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16.8 → (4월)-14.7 → (5월)-11.6
-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8만명 감소하였으며, 4개월째 감소세 유지**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3월)-4.3 → (4월)-8.3 → (5월)-12.8

그림 19 |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0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 직업의 숙련 별 분류는 OECD(2019) "Where Have the Middle Class Job Gone?"을 인용. "고숙련 직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숙련 직업"은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저숙련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 노동 종사자로 구성

5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는 종사자 300인 사업체 기준 전 규모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감소유지

-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4.3월)5.3(1.7) → (4월)4.4(1.4) → (5월)1.6(0.5)

■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0.2%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감소

-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4.3월)12.0(0.5) → (4월)21.7(0.9) → (5월)6.4(0.2)

4월 「빈 일자리 수」는 전년동월대비 21,931명 감소하면서 3개월째 감소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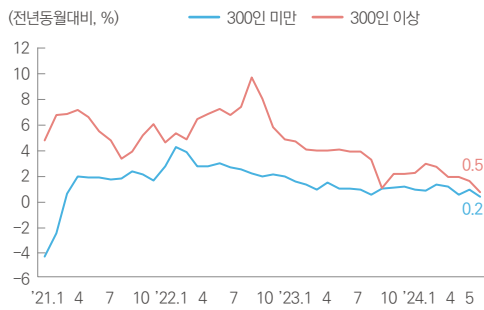
■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전년동월대비 2,144명 감소하였으며, 5개월째 감소세 유지

- 빈 일자리 수(300인 이상)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24.2월)-1.3(-14.8) → (3월)-0.6(-7.9) → (4월)-2.1(-23.2)

■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전년 동월대비 19,786명 감소하였으며, 3개월째 감소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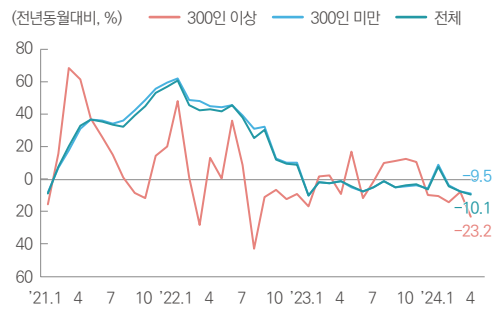
- 빈 일자리 수(300인 미만)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24.2월)-9.5(-4.4) → (3월)-16.2(-7.9) → (4월)-19.8(-9.5)

| 그림 21 |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변화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2 | 빈 일자리 수 변화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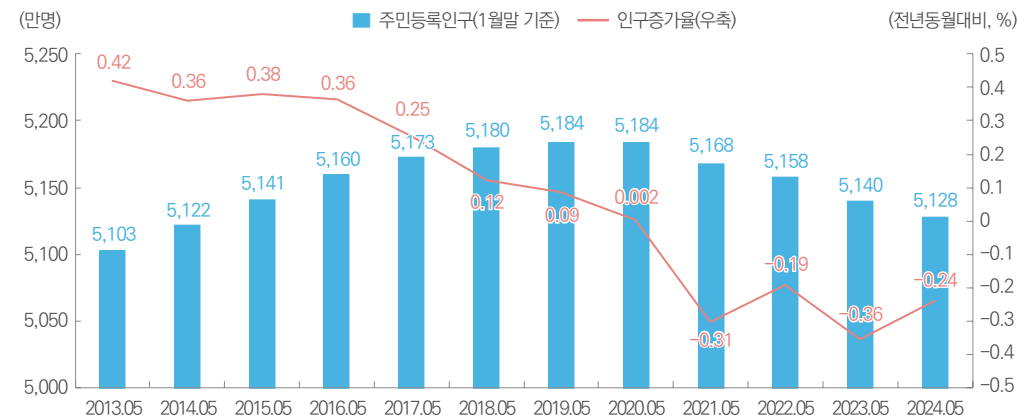
3 인구

5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12만명 감소

-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5,18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주민등록인구는 5,1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4% 감소

•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각 연도 5월 말 기준)은 2020년(0.002%)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1년(-0.31%)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뒤 2022년 -0.19%, 2023년 -0.36%, 2024년 -0.24%로 감소세 지속

| 그림 23 |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3.5~20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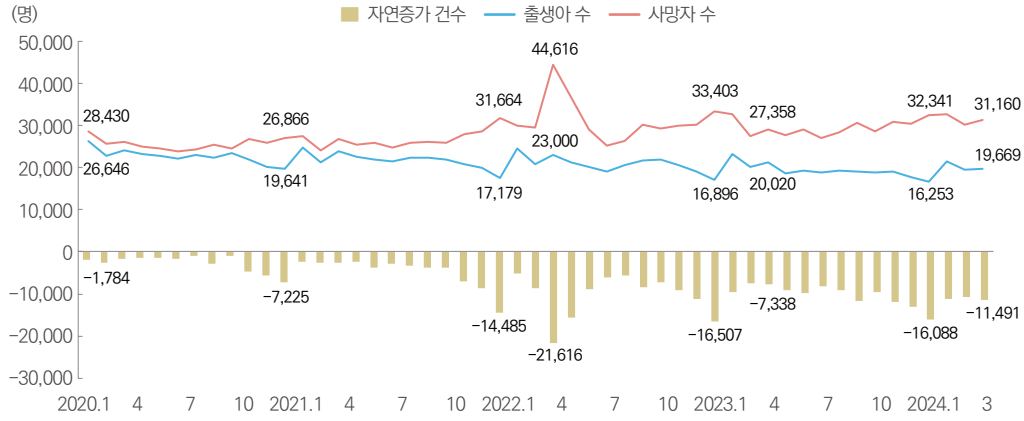


주: 각 연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3월 「출생아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를 하회하여 53개월째 자연감소 지속

-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 3월 출생아 수는 19,66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9명 감소(-7.3%)하였음
- 3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205명 증가(7.6%)한 31,160명을 기록

| 그림 24 | 월별 출생아수, 사망자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20.1~20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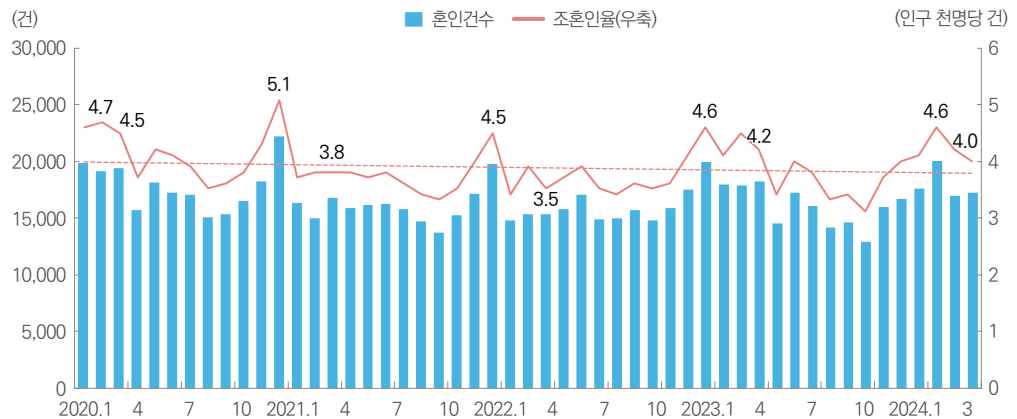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3월 혼인건수는 17,19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992건 감소(-5.5%)하였고,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4.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2건 감소
- 각 연도 3월 기준 조혼인율은 2020년 4.5건, 2021년 3.8건, 2022년 3.5건, 2023년 4.2건

| 그림 25 |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2020.1~2024.3)



주: 점선은 조혼인율의 선형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III

경제동향

금융·자산·재정

5월 국내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모두 전월말 대비 하락

- 5월 국고채금리는 물가 상승률 둔화 정체 등으로 전월말 대비 하락
 - 국고채(3년) 금리(%): (2024.3월말)3.32 → (4월말)3.53 → (5월말)3.45
- 5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진정 등으로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
 - 원/달러 환율: (2024.3월말)1,347 → (4월말)1,379 → (5월말)1,377

5월 중 「원유,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석탄」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모두 상승

- 원유 가격은 OPEC+의 단계적 감산 철폐와 중국의 수요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월대비 7.5% 하락, 석탄 가격은 전월대비 5.2% 상승, 천연가스 가격은 0.6% 하락
 - 원유 가격(달러/배럴): (3월)83.5 → (4월)88.0 → (5월)81.4
 - 석탄 가격(달러/톤): (3월)131.5 → (4월)135.0 → (5월)142.0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3월)13.2 → (4월)11.9 → (5월)11.8
-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수요증가로 전월대비 각각 1.3%, 5.5%, 1.8% 상승, 농산물 지수는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2.2% 하락
 - 농산물 지수: (3월)113.5 → (4월)117.3 → (5월)114.7
 - 식품 지수: (3월)117.2 → (4월)116.6 → (5월)118.1
 - 금속·광물 지수: (3월)102.0 → (4월)100.1 → (5월)101.5
 - 귀금속 지수: (3월)162.0 → (4월)175.8 → (5월)179.0

5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신재생·기타 29.2% 증가, 석탄 27.0% 감소

- 5월 최대전력은 69.9GW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
- 5월 1kWh당 정산단가는 121.7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 5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신재생 및 기타는 29.2%, 원자력은 9.4%, 가스는 4.7% 증가, 석탄은 전년동월대비 27.0% 감소

4월 「전력수요」는 공공·서비스·가정 부문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4월 총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하였는데, 공공부문 5.4%, 서비스부문 4.1%, 가정부문 3.3% 증가
- 산업부문의 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3% 감소

5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하락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0.01% → 0.02%)이 상승 전환, 지방(-0.09% → -0.06%)이 하락폭 축소되며 전국적으로 하락폭 축소(-0.05% → -0.02%)

4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조원 증가, 누계 「총지출」은 19.6조원 증가

- 4월 누계 총수입은 213.3조원을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 4월 누계 총지출은 260.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

1 국내 금융시장

가.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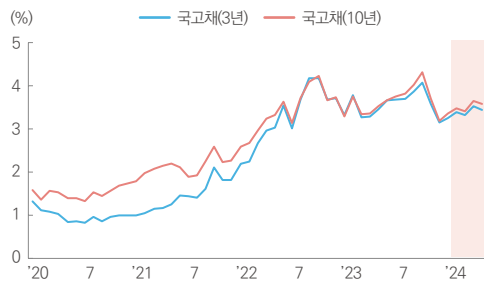
5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는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

- 5월 국고채금리는 국내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등 금리 상승 압력이 진정되면서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
 - 5월말 한국 국고채(3년) 금리와 국고채(10년) 금리는 각각 3.45%, 3.58%로 전월말 대비 0.06%p, 0.08%p 하락
 - 5월말 기준 국고채(3년) 금리와 국고채(10년) 금리는 2024년 3월말 대비로는 각각 0.23%p, 0.17%p 높은 수준

■ 한편 5월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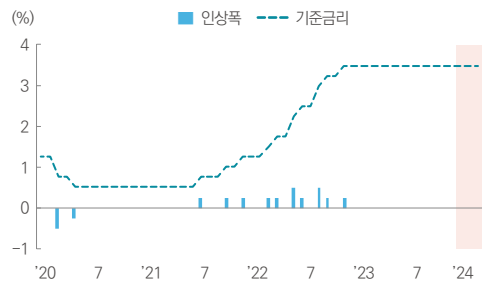
- 5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 성장률 상향,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2024년 5월까지 11차례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중

| 그림 1 |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그림 2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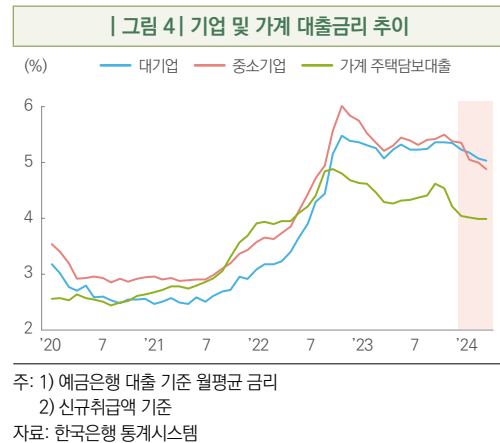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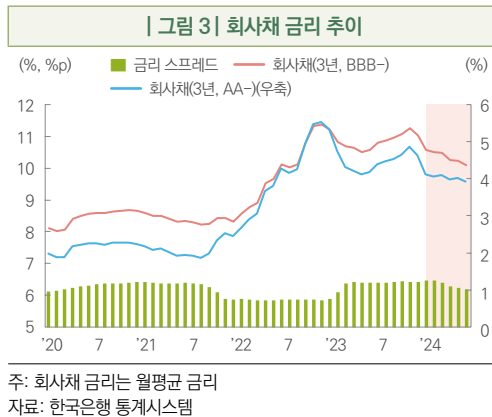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5월 「회사채 금리」와 4월 「기업 및 가계 대출 금리」는 모두 하락

■ 5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경제 성장을 상향, 수출 호조 등 경제 불확실성 감소로 하락

- 5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대비 0.10%p 하락한 3.88%, 회사채 3년물(BBB-) 금리도 전월대비 0.14%p 하락한 10.05%를 기록
- 회사채(3년, AA-)와 회사채(3년, BBB-)의 금리 하락 추세는 둔화 흐름

■ 4월 기업대출 금리와 가계 주택담보 대출 금리 모두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3월 대비 대기업 대출 금리는 0.04%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0.12%p,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6%p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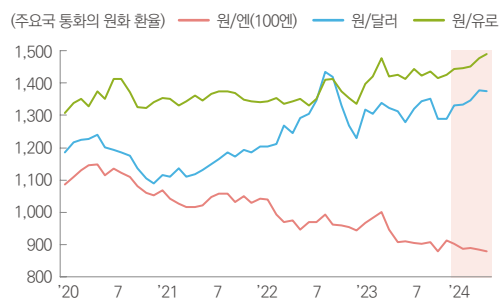


나. 환율

5월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미 달러와 일본 엔화 환율 하락, 유로화 환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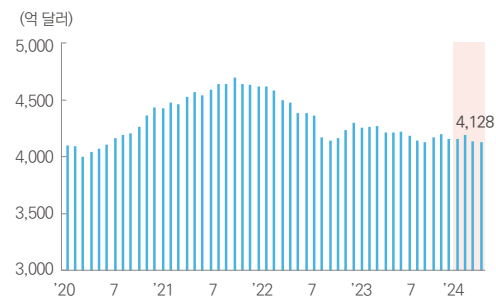
- 5월 미 달러에 대한 대원화 환율은 달러화 강세의 진정 등으로 소폭 하락
 - 5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대비 0.16%p 소폭 하락
- 5월 유로화에 대한 대원화 환율은 유럽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
 - 5월말 원/유로환율은 전월말 대비 0.92%p 상승
- 5월 일본 엔화에 대한 대원화 환율은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 등으로 하락
 - 5월말 원/엔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0.55%p 하락
- 한편 5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스왑⁸⁾등 시장안정화 조치로 전월대비 4.3억 달러 감소한 4,128억 달러 수준

| 그림 5 |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그림 6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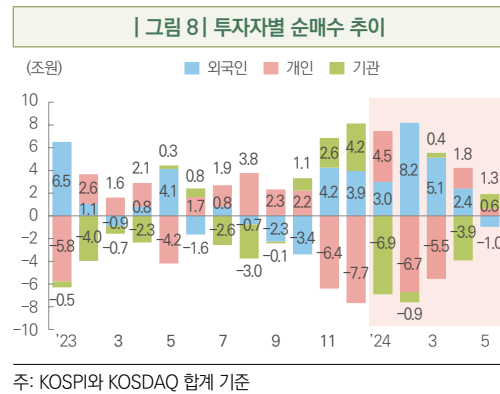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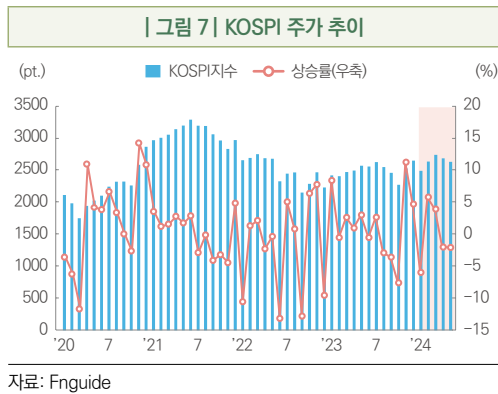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8) 외환당국(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은 환율 변동 위험과 외화자금 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2024년말까지 3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2023년 12월 재합의(2023년 4월 체결한 외환스왑거래를 1년간 연장)

다. 주가

5월 「국내 주가」는 하락

- 5월말 국내 KOSPI지수는 글로벌 금리 상승, 매수세 부진 등으로 전월말(2,692) 대비 2.06%p 하락한 2,637을 기록
 - 3월말 2,747을 기록한 이후 4월말 2,692, 5월말 2,637로 두달 연속 하락
- 5월 투자자별 순매수액은 기관이 1.3조원, 개인이 0.6조원 순매수하였으나 외국인이 1.0조원 순매도⁹⁾
 - 외국인투자자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5월에 올해 처음 순매도로 전환



9) 한국거래소 분류 기준에 따르면 투자자는 크게 개인(개인투자자), 기관(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외국인(외국 금융 기관, 기타외국인), 기타법인(개인, 기관, 외국인에 속하지 않는 법인 투자자)로 구분됨. 이 중 기타법인의 거래 비중이 크지 않아 개인, 기관, 외국인을 중심으로 서술함.

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5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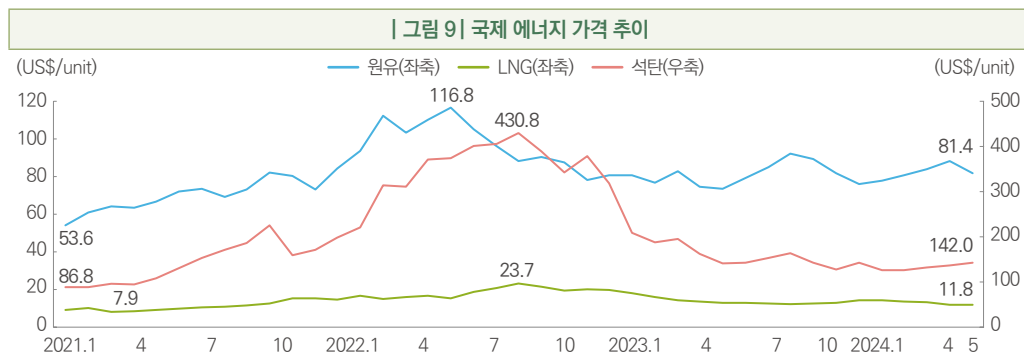
- 원유 가격은 중국의 수요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OPEC+의 단계적 감산 철폐로¹⁰⁾ 배럴 당 81.4달러를 나타내며 전년동월대비 9.9% 상승, 전월대비 7.5% 하락
- 원유 가격(달러/배럴): (3월)83.5 → (4월)88.0 → (5월)81.4

5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석탄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산업 부문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톤당 142.0달러의 가격으로 전년동월 대비 11.5% 하락, 전월대비 5.2% 상승
- 석탄 가격(달러/톤): (3월)131.5 → (4월)135.0 → (5월)142.0

5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동절기를 지나며 생긴 하방 압력으로 백만비티유(MMbtu)당 11.8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2.1%, 전월대비 0.6% 하락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¹¹⁾): (3월)13.2 → (4월)11.9 → (5월)11.8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2.1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0.7% 하락, 전월대비 33.5% 상승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10.1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0.1%, 전월대비 11.4% 상승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원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석유수출국기구(OPEC)

10)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는 오늘 10월부터 자발적 감산의 단계적 철폐를 결정(2024. 6. 2)

11)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5월 「농산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농산물 지수는 114.7로 코코아, 코코넛유, 커피, 땅콩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전월대비 2.2% 하락

• 농산물 지수: (3월)113.5 → (4월)117.3 → (5월)114.7

5월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식품 지수는 118.1로 밀, 바나나, 밀가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9% 하락하였고 오렌지, 닭고기, 쌀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상승

• 식품 지수: (3월)117.2 → (4월)116.6 → (5월)118.1

5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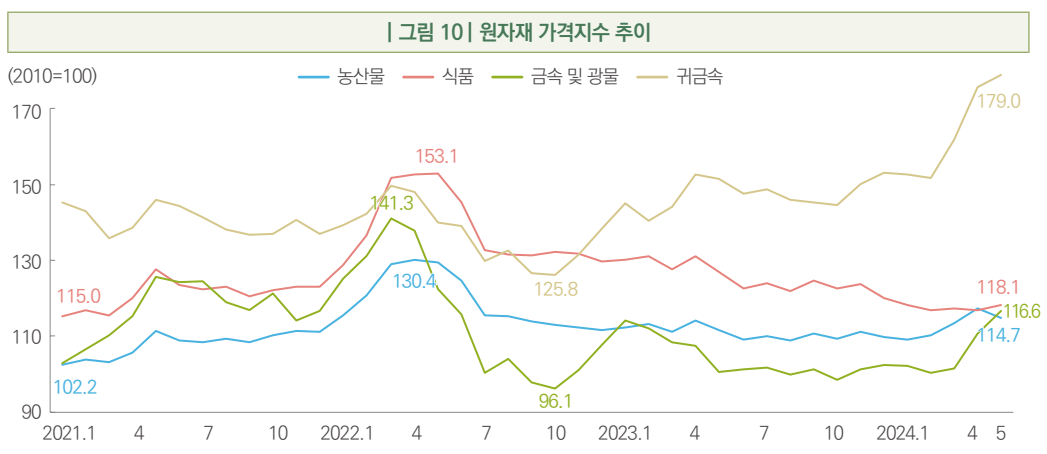
- 금속·광물 지수는 116.6로 주석, 구리, 아연, 철광석, 알루미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6.0%, 전월대비 5.5% 상승

• 금속·광물 지수: (3월)101.5 → (4월)110.5 → (5월)116.6

5월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귀금속 지수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 및 제3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비율 증가로¹²⁾ 인해 179.0을 나타내며 전년동월대비 18.1%, 전월대비 1.8% 상승

• 귀금속 지수: (3월)162.0 → (4월)175.8 → (5월)179.0



주: 세계은행 원자재가격 데이터(Pink sheet)는 2010년=100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을 나타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12) 2022년 4월 이후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액을 1조 달러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말 기준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7,280만 온스로 18개월째 증가, 중국외환관리국(2024. 6. 7)

[BOX 1] 국내 에너지 수요

3월 「최종에너지 소비」¹³⁾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 수요 증가와 수송 부문의 소비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0.7%, 전월대비 1.9% 증가

■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와 도시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등의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천연가스(94.7), 도시가스(11.2), 전력(3.2), 신재생 및 기타(3.2), 열(1.9), 석탄(-1.6), 석유(-3.9)

■ 전월대비로는 난방수요 감소로 인해 열, 천연가스, 도시가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했지만, 석유와 석탄의 소비 증가로 전체적으로 1.9% 증가(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전체의 58%)

• 전월대비 증감률(%): 석유(9.9), 석탄(7.2), 신재생 및 기타(0.4), 전력(-3.0), 도시가스(-10.5), 천연가스(-22.1), 열(-31.2)

■ 에너지 부문별 소비로는 수송과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각각 전월대비 22.8%, 4.4% 증가하여 전체 수요를 견인

• 전월대비 증감률(%): 수송(22.8), 산업(4.4), 상업·공공(-8.5), 가정(-16.9)

에너지원별, 소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

		2021	2022p	2023p	2024p				
					1월	2월	3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15,664	214,482	208,589	20,612	18,169	18,507	0.7	1.9
전년동기대비		5.8	-0.5	-2.7	2.1	0	0.7	-	-
에너지원별	석탄	32,251	30,563	30,134	2,616	2,380	2,550	-1.6	7.2
	석유	103,310	101,602	97,664	8,985	7,741	8,505	-3.9	9.9
	천연가스	2,131	2,227	2,804	346	328	255	94.7	-22.1
	도시가스	23,382	23,837	22,075	3,246	2,798	2,505	11.2	-10.5
	전력	44,748	46,041	45,982	4,194	3,943	3,826	3.2	-3.0
	열	2,701	2,946	2,631	522	375	258	1.9	-31.2
	신재생 및 기타	7,141	7,265	7,298	704	605	607	3.2	0.4
부문별	산업	132,960	130,463	127,125	11,639	10,575	11,042	-0.1	4.4
	수송	36,636	36,294	35,259	3,012	2,422	2,973	-7.9	22.8
	가정	22,940	23,560	21,843	3,412	2,894	2,406	13.7	-16.9
	상업·공공	23,128	24,165	24,363	2,549	2,279	2,085	5.4	-8.5

주: 1) 2023, 2024년 자료는 잠정치(p)

2) 개정된 에너지밸런스 기준으로 작성

3) 신재생 및 기타는 바이오 및 폐기물, 지열, 태양 및 기타 포함, 수력은 합계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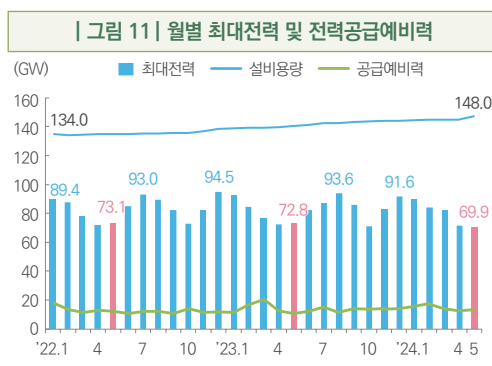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13)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 그리고 상업·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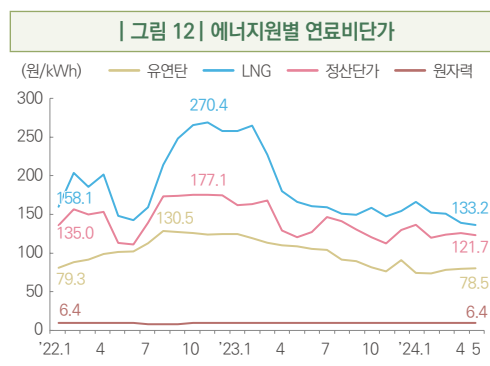
나. 전력수급동향

5월 「최대전력」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정상단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5월 최대전력은 69.9GW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하였고, 전력공급안정성을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12.7GW, 전력공급예비율 18.1%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¹⁴⁾
 - 5월의 평균기온은 17.7℃로 평년(17.3℃)보다 높았음
- 5월 1kWh당 정산단가¹⁵⁾는 121.7원으로 석탄발전 및 가스발전 연료비단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¹⁶⁾는 1kWh당 78.5원으로 전년동월(109.1원)대비 28.1% 하락하였고,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kWh당 133.2원으로 전년동월(164.0원)대비 18.8% 하락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21.7원으로 전월대비로는 1.8%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118.5원)대비로는 2.7% 상승하였고, 최고치인 2022년 11월(177.1원) 대비 31.3% 하락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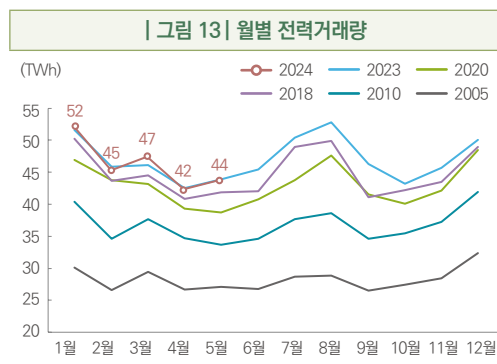
14)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15) 정산단가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시 전력공급자(전력구매자)가 받아야 할 금액(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계산한 단위당 가격으로 전력공급비용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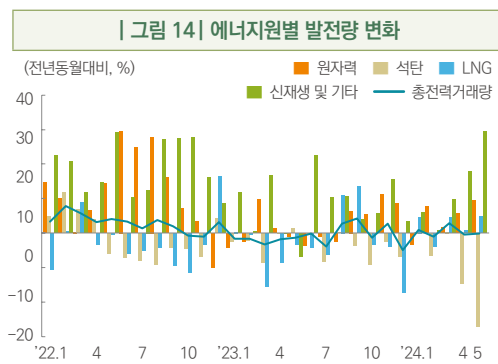
16)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함

5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신재생 및 기타 29.2% 증가, 원자력 9.4% 증가하였고, 석탄은 27.0% 감소

- 5월 전력거래량¹⁷⁾은 43,598GWh로 전월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0.2% 감소
- 5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신재생 및 기타는 29.2%, 원자력은 9.4%, 가스는 4.7% 증가하였고, 석탄은 전년동월대비 27.0% 감소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34.5%, 가스 27.5%, 석탄 22.2%, 신재생 및 기타 14.4% 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4월 「전력수요」는 공공·서비스·가정 부문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4월 총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1% 증가(470GWh)하였는데, 공공부문의 수요가 5.4%, 서비스부문의 수요가 4.1%, 가정부문의 수요가 3.3% 증가
 - 산업부문의 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3%(-301GWh) 감소하였음
 - 총 전력수요에서 각 부문의 비중은 산업 52.6%, 서비스부문 28.2%, 가정부문 14.3%, 공공부문 4.8%였음

17)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에 PPA거래량을 포함한 총 전력거래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표 1 |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21	2022	2023	2024p				
				4월	3월	4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33,431	547,933	545,966	42,301	42,871	42,771	1.1	-0.2
전년동기대비	4.7	2.7	-0.4	-3.3	2.9	1.1		
가정부문	77,558	78,558	79,886	5,936	6,200	6,130	3.3	-1.1
공공부문	25,153	26,218	26,604	1,958	2,306	2,063	5.4	-10.5
서비스부문	148,060	155,220	157,771	11,587	13,078	12,059	4.1	-7.8
산업부문	282,660	287,937	281,705	22,820	23,785	22,519	-1.3	-5.3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4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I. 지출

II. 생산·공용·인구

III. 금융·자산·재정

IV. 해외경제 동향

V. 기술경제 동향

VI. 경제 원안

3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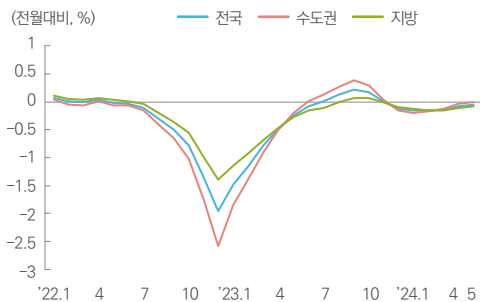
5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하락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02%로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 수도권은 0.02%로 상승 전환, 지방은 -0.06%로 하락폭 축소
 - 전세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우려 일부 해소 등의 영향
 - 178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66개→72개)은 증가, 보합 및 하락지역(112개→106개)은 감소

5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는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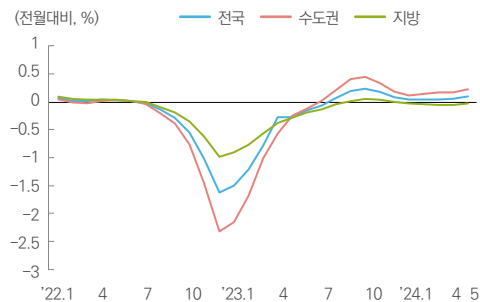
- 주택 전월세통합지수는 수도권이 0.25%로 상승폭 확대, 지방은 -0.01%로 하락폭 축소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0.12% 상승
 -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 지속

| 그림 15 |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그림 16 |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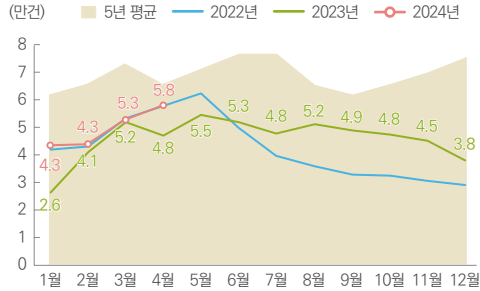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4월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누적 거래량도 전년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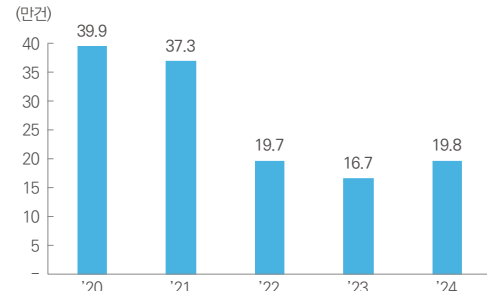
- 주택매매 거래량은 5만 8,215건으로 전월대비 10.2% 증가,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
 - 수도권(2만 7,124건)은 전월 대비 19.4% 증가, 지방(3만 1,091건)은 전월 대비 3.3% 증가
- 4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19만 7,555건으로 전년 동기(16만 6,840건) 대비 18.4% 증가

| 그림 17 | 월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 그림 18 | 연도별 4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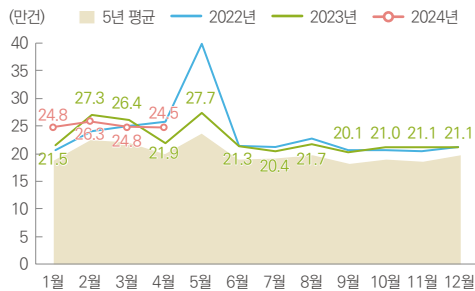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대비 감소, 누적 거래량은 전년대비 증가

- 전월세 거래량은 24만 5,405건으로 전월대비 1.0% 감소, 전년동월대비 11.9% 증가
 - 전세(10만 2,235건)는 전월대비 0.3% 증가, 월세(14만 3,170건)는 전월대비 2.0% 감소
- 4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100만 3,5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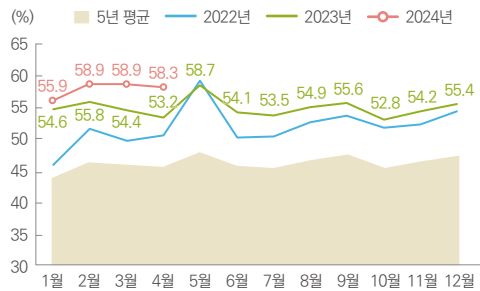
| 그림 19 |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 그림 20 |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을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4 재정

가. 총수입

1월~4월 누계 총수입은 213.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원(0.7%) 증가¹⁸⁾

■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8.4조원(-6.7%) 감소한 125.6조원

- 소득세는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0.4조원 감소한 35.3조원
- 법인세는 법인 사업실적 저조로 인한 납부세액 감소로 12.8조원 감소한 22.8조원
-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실적 증가 등에 따라 4.4조원 증가한 40.3조원
-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0.3조원 감소한 2.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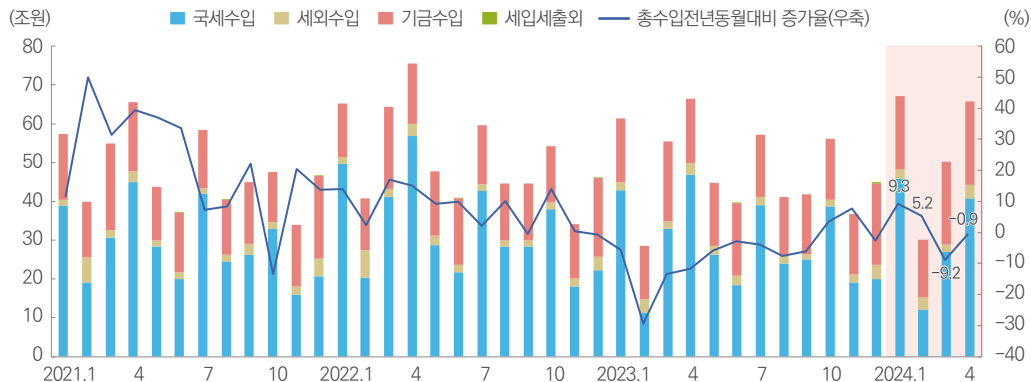
■ 4월 누계 세외수입은 11.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조원 증가

■ 4월 누계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9.2조원 증가한 76.6조원

■ 4월 전년동월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0.9%로 2개월 마이너스

- 전년동월대비 총수입 증가율: 1월 9.3%, 2월 5.2%, 3월 -9.2%, 4월 -0.9%

| 그림 21 | 월별 총수입 실적치 추이(2021.1~2024.4)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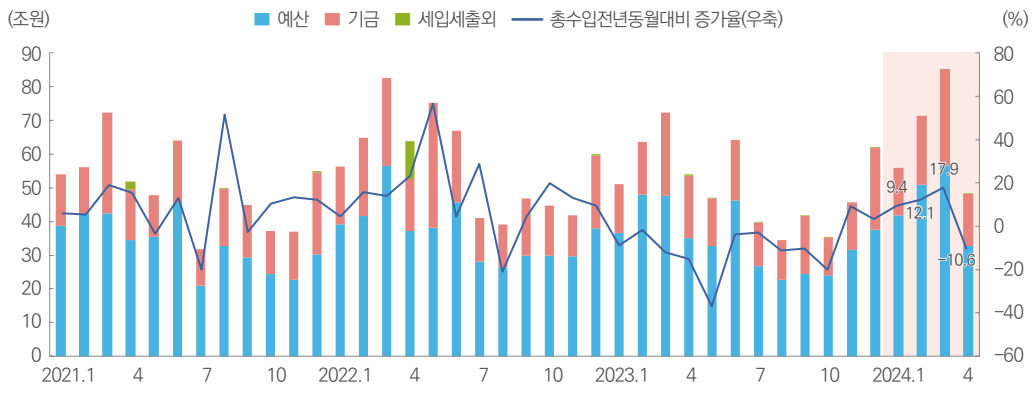
18) 이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관련된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의 실적치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 단위로 발표하고 있음.

나. 총지출

1월~4월 누계 총지출은 260.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6조원(8.1%) 증가

- 4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지출은 182.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0조원 증가
- 4월 기금지출은 78.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원 증가
- 그밖에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으로 4월 세입세출 외 지출은 0.1조원
- 4월 전년동월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10.6%
 - 전년동월대비 총지출 증가율: 1월 9.4%, 2월 12.1%, 3월 17.9%, 4월 -10.6%

| 그림 22 | 월별 총지출 실적치 추이(2021.1~20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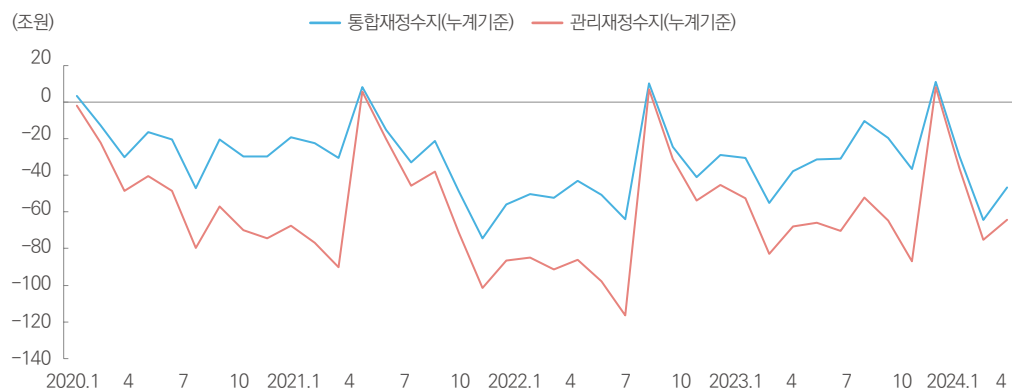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재정수지

1~4월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7.1조원 적자

-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7.1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18.1조원 증가
- 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4.6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19.2조원 증가

| 그림 23 | 월별 누계기준 재정수지 추이(2020.1~2024.4)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국 경제 지표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3월	4월	5월
생산	미국	3.4	0.2	-0.3	0.8	1.6	-1.8	-0.3	0.1	0.0	-
	유로	-0.2	0.0	-0.1	0.3	-0.6	0.5	-0.5	0.6	-	-
	일본	0.0	-1.4	-1.7	1.2	-1.4	1.1	-5.1	4.4	-0.1	-
소비	미국	2.5	2.2	0.9	0.2	0.8	0.8	0.5	0.4	-0.1	-
	유로	-0.2	0.0	-0.1	0.1	-0.3	-0.1	0.2	0.7	-0.5	-
	일본	2.6	5.7	2.0	1.3	1.9	-0.9	0.0	-1.2	1.2	-
물가	미국	8.0	4.1	5.8	4.0	3.5	3.2	3.3	3.5	3.4	3.3
	유로	8.4	5.5	8.0	6.2	4.9	2.7	2.6	2.4	2.4	2.6
	일본	2.5	3.3	3.6	3.4	3.1	2.9	2.5	2.7	2.5	-
국채 금리	미국	3.0	4.0	3.5	3.8	4.6	3.9	4.2	4.2	4.7	4.5
	유로	1.2	2.5	2.3	2.4	2.8	2.0	2.3	2.3	2.6	2.7
	일본	0.2	0.6	0.4	0.4	0.8	0.6	0.7	0.7	0.9	1.1

주: 1. 생산 및 소비는 전기대비,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주요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이며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Datastream

해외경제 동향

미국경제는 생산과 소비에서 완만한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4.2월)0.8 → (3월)0.1 → (4월)0.0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4.2월)0.3 → (3월)0.4 → (4월)-0.1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4.3월)31.0 → (4월)16.5 → (5월)27.2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2월)6.6 → (3월)6.8 → (4월)7.0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2월)5.5 → (3월)3.1 → (4월)2.3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4.1-2월)4.2 → (3월)4.5 → (4월)4.2
- 종합PMI: ('24.3월)52.7 → (4월)51.7 → (5월)51.0

유로지역은 물가는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는 완만한 개선

- 산업생산(전월대비, %): ('24.1월)-3.2 → (2월)1.0 → (3월)0.6
- 종합PMI(전월대비, %): ('24.3월)50.3 → (4월)51.7 → (5월)52.2
- 소매판매(전월대비, %): ('24.2월)-0.2 → (3월)0.7 → (4월)-0.5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3월)2.4 → (4월)2.4 → (5월)2.6

일본경제는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소비는 점진적으로 개선

- 광공업생산(전월대비, %): ('24.2월)-0.6 → (3월)4.4 → (4월)-0.1
- 소매판매(전월대비, %): ('24.2월)1.7 → (3월)-1.2 → (4월)1.2
- 종합PMI: ('24.2월)50.6 → (3월)51.7 → (4월)52.3 → (5월)52.6

5월 주요국 「국채금리」는 전반적 상승, 「대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 5월말 유로존과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전월말 대비 각각 0.08%p, 0.19%p 상승하였으나 미국 국채 금리는 0.18%p 하락하여 금리 상승세 둔화
- 5월말 미 달러화 대비 유로화와 엔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1.62%, 0.31% 하락하였으나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0.02% 상승하여 달러화 강세 둔화

1 미국

미국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완만한 경기 둔화 흐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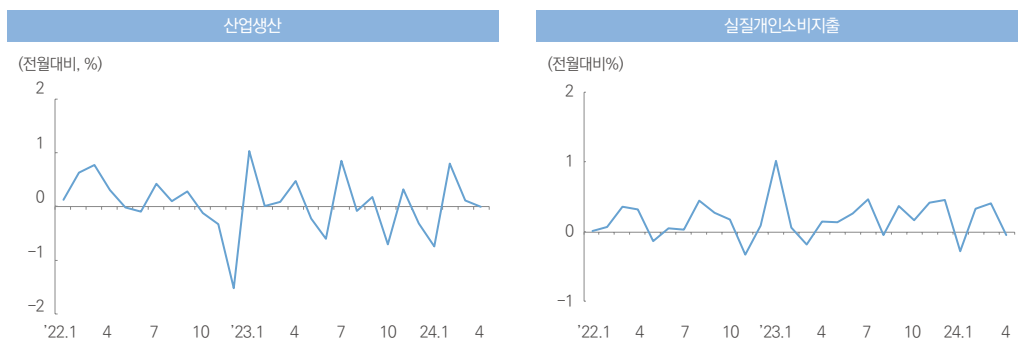
■ 4월 중 「전산업생산」은 제조업(-0.3%)에서 감소하였고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4.2월)0.8 → (3월)0.1 → (4월)0.0
- 제조업생산(전월대비, %): ('24.2월)1.4 → (3월)0.2 → (4월)-0.3
-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5월 중 48.7로 전월에 이어 기준치(50)를 밑돌았고, 비제조업 지수는 53.8로 전월보다 상승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4.3월)50.3 → (4월)49.2 → (5월)48.7
- ISM비제조업 PMI(기준치 50): ('24.3월)51.4 → (4월)49.4 → (5월)53.8

■ 4월 중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서비스소비(0.1%)는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재화소비(-0.4%)에서 줄며 전월대비 0.1% 감소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4.2월)0.3 → (3월)0.4 → (4월)-0.1
- 5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102.0으로 전월의 감소에서 4.5p 증가 전환
-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24.3월)103.1 → (4월)97.5 → (5월)102.0

| 그림 1 | 미국의 월별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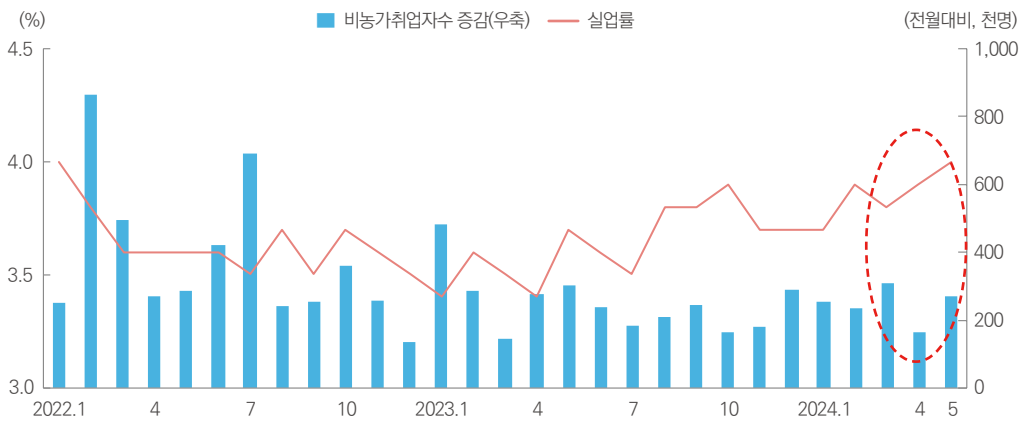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5월 중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월보다 고용증가폭은 확대

- 5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27.2만 명 증가하여 전월(16.5만 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4.0%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
- 업종별로는 교육·의료업(8.6만 명), 여가·음식·숙박(4.2만 명) 등에서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4.3월)31.0 → (4월)16.5 → (5월)27.2
- 실업률(%): ('24.3월)3.8 → (4월)3.9 → (5월)4.0

| 그림 2 | 미국의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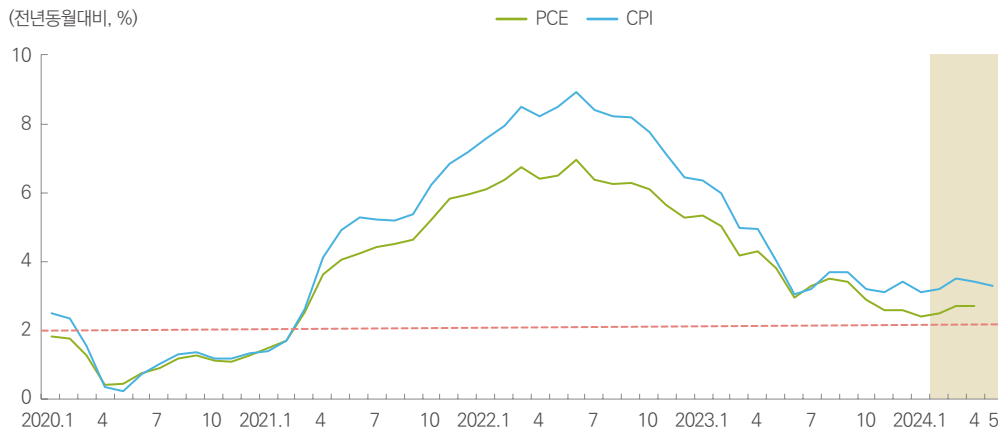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5월 중 「소비자물가」는 임대료(5.3%), 의료(3.1%), 식음료(2.1%)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3% 상승하여 전월(3.4%)에 비해 소폭 둔화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4.3월)3.5 → (4월)3.4 → (5월)3.3
- PCE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4.2월)2.5 → (3월)2.7 → (4월)2.7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4.3월)3.0 → (4월)3.1 → (5월)3.5

[그림 3]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5월 중 시장금리는 장기금리(국채 10년물)와 단기금리(국채 2년물) 모두 전월대비 소폭 하락

-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 5월 중 4.48%로 전월대비 6bp 하락하고, 단기금리(2년물기준)는 4.86%로 1bp 하락하여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4.3월)4.21 → (4월)4.54 → (5월)4.48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4.3월)4.59 → (4월)4.87 → (5월)4.86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 %p): ('24.3월)-0.38 → (4월)-0.33 → (5월)-0.38

■ 미 연준은 6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현 수준(5.25~5.50%)에서 동결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계획대로 지속하기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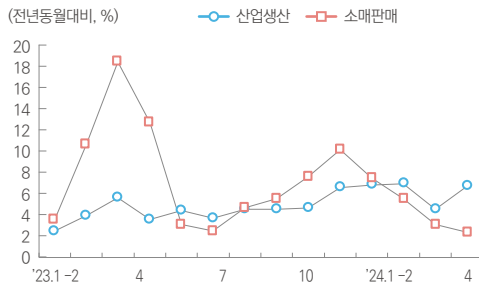
- 수정경제전망에서는 '24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종전(3월) 전망을 유지하였고, PCE상승률은 2.6%로 종전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
- 정책금리는 '24년말 5.1%로 하락(한 차례 인하)하고, '25년말과 '26년말에는 각각 4.1%, 3.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2 중국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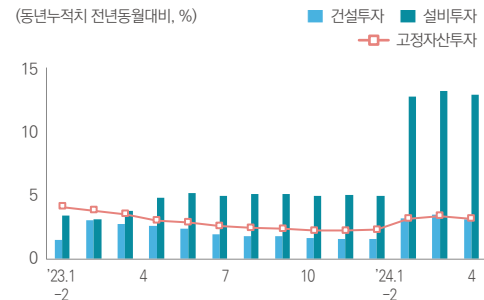
- 2024년 4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7% 증가
 - 산업별로는 광업(2.0%), 제조업(7.5%), 전기·가스·수도업(5.8%)에서 모두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2월)6.6 → (3월)6.8 → (4월)6.7
- 2024년 4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소비유형별로는 상품(2.0%)과 외식업(4.4%)에서 모두 증가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2월)5.5 → (3월)3.1 → (4월)2.3
- 2024년 4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누적치)」는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 투자부문별로는 건설투자(4.2%)와 설비투자(17.2%)가 모두 증가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4.1-2월)4.2 → (3월)4.5 → (4월)4.2

| 그림 4 |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 그림 5 |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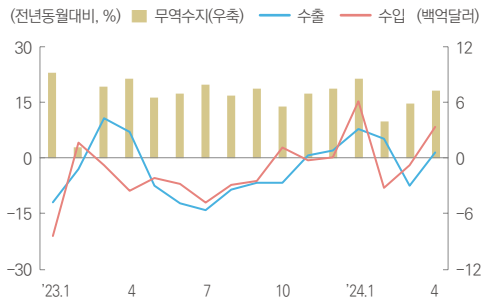
자료: CEIC

- 2024년 4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723.5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8.4% 증가
 - 무역수지(억달러): ('24.2월)393.7 → (3월)586.0 → (4월)723.5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2월)5.4 → (3월)-7.5 → (4월)1.5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2월)-8.1 → (3월)-1.9 → (4월)8.4

■ 2024년 4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0%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 4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43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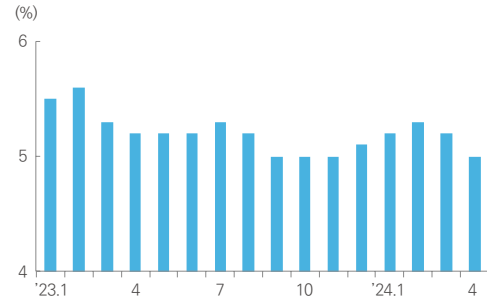
- 실업률(%): ('24.2월)5.3 → (3월)5.2 → (4월)5.0
-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4.2월)146 → (3월)303 → (4월)436

| 그림 6 |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 그림 7 | 중국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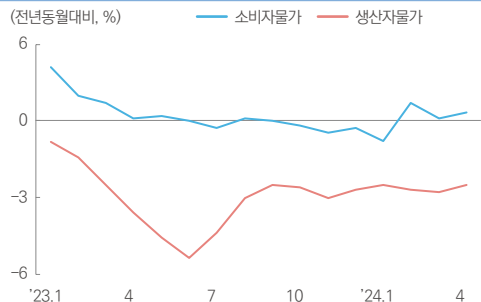
■ 2024년 4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 식료품 물가(-2.7%)는 하락하였으나 식료품외 물가(0.9%)의 상승이 지속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2월)0.7 → (3월)0.1 → (4월)0.3

■ 2024년 5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1.0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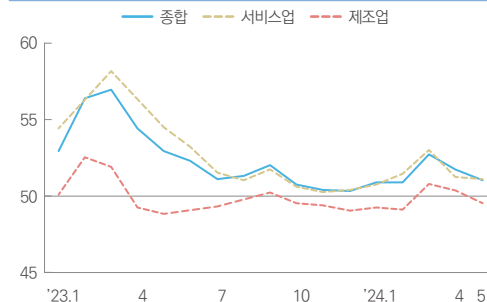
- 종합PMI는 기준선(50.0)을 상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7p 하락
- 2024년 5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49.5, 51.1을 기록
- 종합PMI: ('24.3월)52.7 → (4월)51.7 → (5월)51.0

| 그림 8 |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 그림 9 |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물가는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는 완만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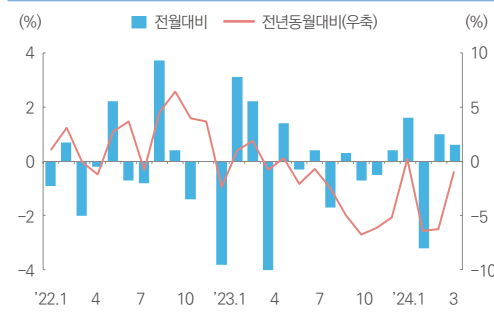
■ 3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증가

- 산업생산은 중간재(-0.5%), 에너지(-0.9%), 소비재(-1.8%)에서 감소했으나, 자본재(1.0%)에서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6% 증가
- 국가별로는 프랑스(-0.3%), 이탈리아(-0.5%), 독일(-0.7%)에서는 감소했으나, 아일랜드(12.8%), 벨기에(6.8%) 등에서 증가
- 유로지역 산업생산(전월대비, %): ('24.1월)-3.2 → (2월)1.0 → (3월)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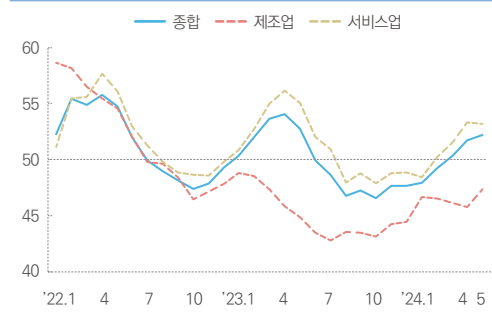
■ 3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52.2으로 50선 상회

- 서비스 PMI(53.2)와 제조업 PMI(47.3) 모두 회복 추이
- 유로지역 종합PMI(전월대비, %): ('24.3월)50.3 → (4월)51.7 → (5월)52.2
- 유로지역 제조업PMI(전월대비, %): ('24.3월)46.1 → (4월)45.7 → (5월)47.3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전월대비, %): ('24.3월)51.5 → (4월)53.3 → (5월)53.2

| 그림 10 |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 그림 11 | 유로지역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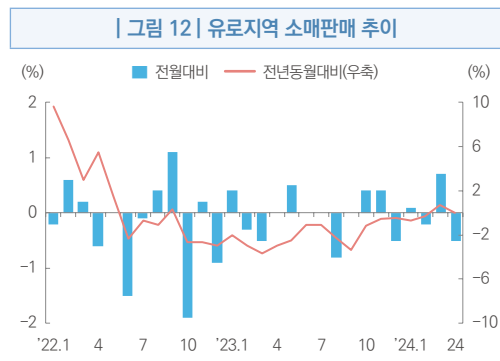


■ 4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0.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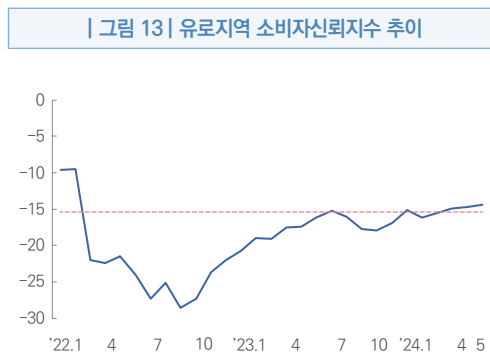
- 소매판매는 식료품(-0.5%), 비식료품(-0.1%)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온라인 소매판매(1.5%)는 증가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4.2월)-0.2 → (3월)0.7 → (4월)-0.5

■ 5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14.3로 점차 개선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24.3월)-14.9 → (4월)-14.7 → (5월)-14.3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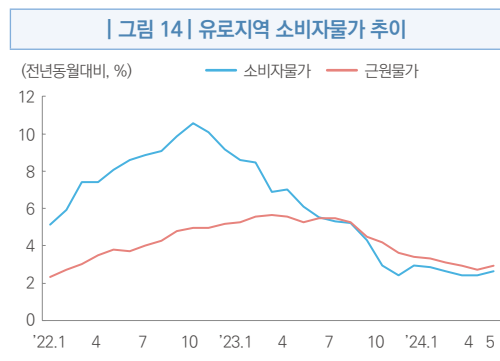


주: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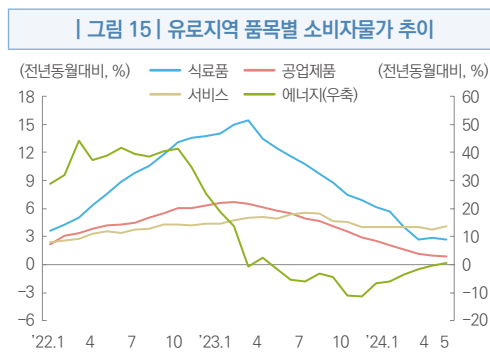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3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2.6% 상승

- 에너지와 근원물가 모두 소폭 상승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3월)2.4 → (4월)2.4 → (5월)2.6
- 유로지역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4.3월)2.9 → (4월)2.7 → (5월)2.9
- 유로지역 에너지(전년동월대비, %): ('24.3월)-1.8 → (4월)-0.6 → (5월)0.3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4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6.4%

- 4월 청년실업률은 14.1%
- 유로지역 실업률(%): ('24.2월)6.5 → (3월)6.5 → (4월)6.4

4 일본

일본경제는 소비가 개선세를 보였으나 생산은 일부 품목의 납기 지연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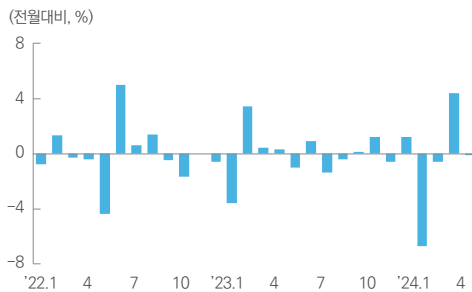
■ 4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1% 감소

- 수송 기계공업 생산 등의 전체 15개 업종 가운데 7개 업종에서 감소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4.2월)-0.6 → (3월)4.4 → (4월)-0.1

■ 5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기준치(50)를 상회하며 개선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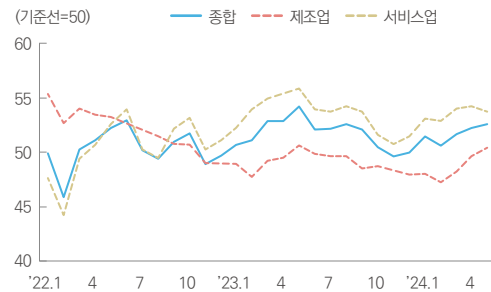
- 제조업 PMI는 전월 수준을 지속한 반면 서비스 PMI는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 종합PMI: ('24.2월)50.6 → (3월)51.7 → (4월)52.3 → (5월)52.6
- 제조업PMI: ('24.2월)47.2 → (3월)48.2 → (4월)49.6 → (5월)50.4
- 서비스PMI: ('24.2월)52.9 → (3월)54.1 → (4월)54.3 → (5월)53.8

| 그림 16 |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17 |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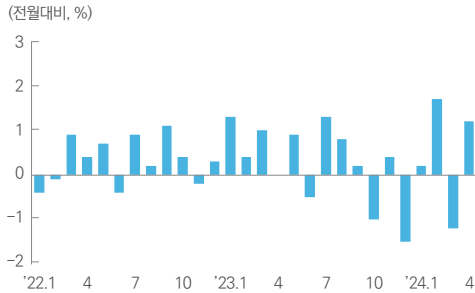
■ 4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1.2%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2.4% 증가
- 소매판매(전월대비, %): ('24.2월)1.7 → (3월)-1.2 → (4월)1.2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2월)4.7 → (3월)1.1 → (4월)2.4

■ 4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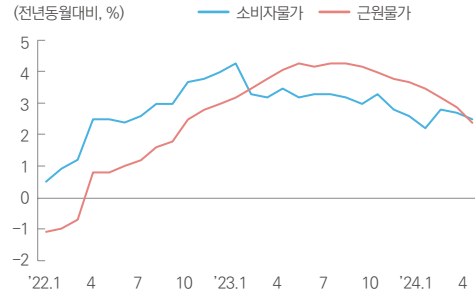
-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2월)2.8 → (3월)2.7 → (4월)2.5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4.2월)3.2 → (3월)2.9 → (4월)2.4

| 그림 18 |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19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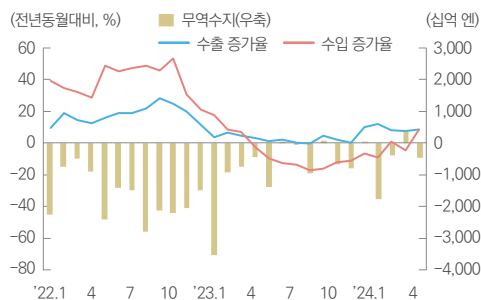
■ 4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465.6십억엔 적자를 기록

- 무역수지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액이 증가하여 적자를 기록
- 무역수지(십억엔): ('24.2월)-383.0 → (3월)382.4 → (4월)-465.6
-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2월)7.8 → (3월)7.3 → (4월)8.3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2월)0.6 → (3월)-5.1 → (4월)8.3

■ 5월 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57.3엔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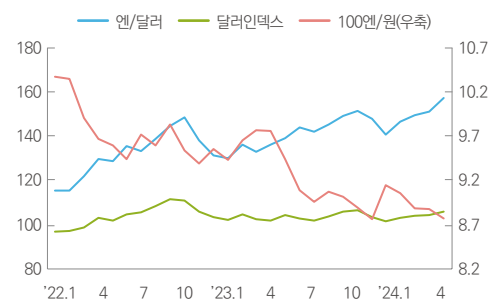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월말): ('24.2월)150.0 → (3월)151.4 → (4월)157.8 → (5월)157.3

| 그림 20 |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21 |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5 글로벌 금융시장

가. 금리

5월 주요국 「국채금리」는 전반적 상승

■ 5월말 주요국 국채(10년) 금리는 미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지속 등으로 전반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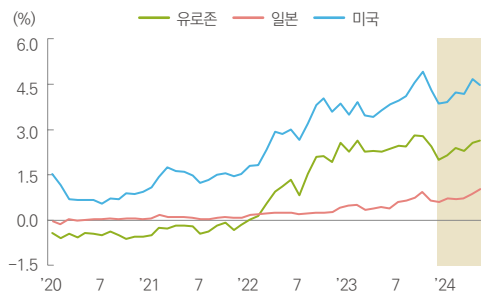
- 5월말 유로존과 일본 국채 금리는 전월말 대비 각각 0.08%p, 0.19%p 상승
- 한편 5월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전월말 대비 0.18%p 하락하였으나 3월말 대비 0.30%p 높은 수준

■ 한편 미 연준은 2023년 7월 기준금리를 5.00~5.25%에서 5.25~5.50%로 인상한 이후 9월, 11월, 12월, 2024년 2월, 3월, 5월, 6월까지 7차례 기준금리를 동결

- 미국 물가 하락의 정체와 고용 시장 호조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감소

※ 참고로 캐나다 중앙은행(6.5.)과 유럽중앙은행(6.6.)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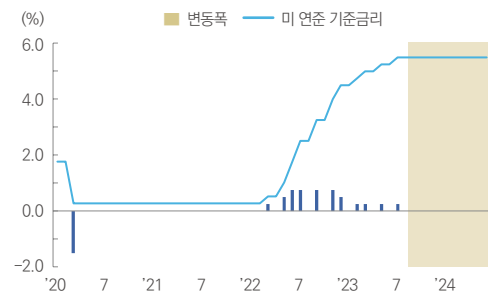
| 그림 22 | 주요국 국채(10년) 금리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 그림 23 | 미 연준 기준금리 추이



자료: Morningstar

나. 환율

5월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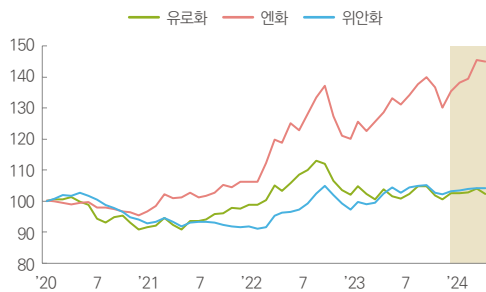
■ 5월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연초부터 이어져 온 달러화 강세 진정

- 5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와 엔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1.62%, 0.31% 하락
- 한편 5월말 기준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0.02% 소폭 상승

■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¹⁹⁾는 5월말 기준 전월말 대비 1.46% 하락한 104.7을 기록

- 다만, 5월말 달러인덱스는 3월말 대비 0.12% 상승하여 달러화 강세 상황

| 그림 24 |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 추이



주: 1) 2020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그림 25 | 달러인덱스 추이



주: 1973년 3월 = 100 기준
자료: Bloomberg

19)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1973년 3월 = 100 기준)

다.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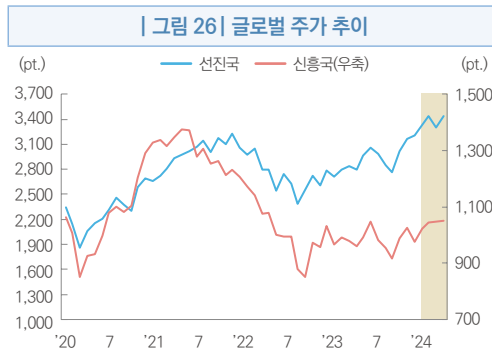
5월 「글로벌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 모두 상승

■ 선진국 IT 기업 관련 주 상승과 세계 경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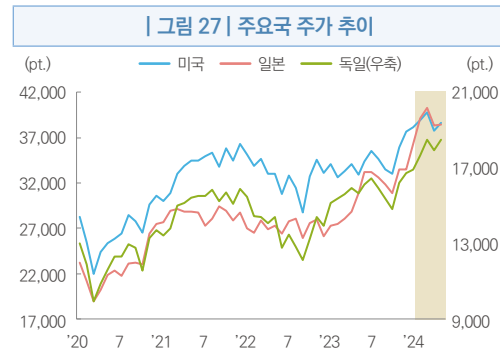
- 5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4.23%, 신흥국 주가는 0.29% 상승

■ 5월 미국, 독일, 일본 주가 모두 상승

- 5월말 기준 미국, 독일, 일본의 주가는 전월말 대비 각각 2.30%, 3.16%, 0.21% 상승
- 미국 3대 주가 지수(다우지수, S&P500, 나스닥) 모두 5월 중 사상 최고치 경신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라. 금융위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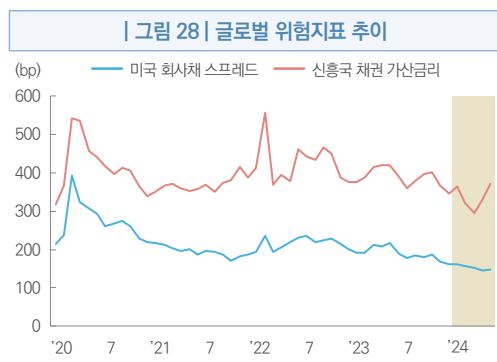
5월 「글로벌 금융위험 지표」는 상승

- 글로벌 금융위험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²⁰⁾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²¹⁾는 미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 등에 따라 상승

• 5월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전월대비 41bp 상승한 370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 대비 2bp 상승한 146bp를 기록하여 국가 간 상승 폭 차이 존재

-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²²⁾도 소폭 하락

• 5월 VIX지수는 전월 대비 2.73p 하락한 12.92를 기록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20)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지며 금융시장이 안정화 될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하락

21)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미국의 Baa 등급 10년물 회사채 금리와 국채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부각되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스프레드가 확대

22)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S&P500 지수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증시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지수라고도 함



경제동향

기술경제 동향

달 현지자원 활용: 우리나라 역할과 미래

“기술경제 동향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달 현지자원 활용: 우리나라 역할과 미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주자원개발센터장 | 김경자 책임연구원

1 배경

전세계 달 탐사 동향

- 인류의 달 탐사는 1959년 9월 14일 소련의 달 탐사선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6월 현재 근접비행, 궤도선, 착륙선 등을 포함해 총 142번 이루어짐
 - 미국의 유인 달 탐사는 1960년대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1969년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
 - 2026년 수행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는 2명의 우주비행사가 약 1주일간 달의 남극에서 임무를 수행할 계획
- 최근 달 탐사는 미국, 일본에서 국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민간 주도 탐사의 성공률은 아직 낮은 편
 -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은 2030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사용될 달 지형 탐사 차량 개발을 위해 세 개의 민간 업체(Intuitive Machines, Lunar Outpost, Venturi Astrolab)를 선정
- 국제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달, 화성, 혜성 및 소행성의 민간 탐사 및 사용에 대한 구속력 없는 국가 간 협정임
 - 2024년 6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43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5월에 가입
 - 2020년 12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우주인¹⁾으로 18명(여성 9, 남성 9명)이 선발되었으며, 아르테미스 II 임무에는 최초로 달에 착륙할 캐나다 우주인과 여성 우주인이 포함될 예정²⁾

1) 미국 항공우주국 홈페이지(<https://www.nasa.gov/news-release/nasa-names-artemis-team-of-astronauts-eligible-for-early-moon-missions/>)

2) 미국 항공우주국 홈페이지(<https://www.nasa.gov/feature/our-artemis-crew/>)

우주탐사와 달 현지자원 활용

- 각국은 우주탐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우주의학과 같은 연구 적용, 인류 거주를 위한 식민지 개척, 우주 자원 활용, 탐험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
- 현재 화성(Mars)은 장기 거주, 식민지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달을 전진 기지로 장기적인 생존 기술 터득, 달 자원 등을 확보한 후 화성으로 진출하는 것을 추진 중
- 달 현지자원 활용은 화성 진출에 필수적인 우주기술 실증을 위한 활동임
 - 달 자원조사(궤도선, 착륙선 활용), 자원개발지역에서의 자원 산정/획득, 자원처리 및 소모품생산, 현지에서의 자원생산, 현지 건설, 현지 에너지 확보 등을 포함한 주요 6가지 활동임
 - 달 현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달 자원으로는 생명 유지(물, 산소), 연료/모빌리티(수소, 메탄), 구조물 등 재료(철, 알루미늄), 농업(황, 인, 칼슘, 칼륨,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 유리/태양전지(산화규소), 냉각제(헬륨-4) 등임

| 그림 1 | 지구를 떠나 달에 정착, 생존 기술 입증 후 화성 진출



자료: 미국 항공우주국(NASA)

2 ▶ 전세계 달 자원개발 현황

미국

- 미국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항공 관련 탐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959년 달 근접비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5회 달 탐사를 수행하는 등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달 자원개발 관련 유인 탐사, 궤도선, 착륙선으로 지질탐사를 수행하고, 지금까지 귀환시료 383kg을 지구로 가져옴
 - 2009년 달 남극 캐비우스지역에 엘크로스(LCROSS) 충돌 후 분진 분석결과로 달에는 인류가 활용할 충분한 물 등 기타 자원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프로그램은 지질조사보다는 자원조사, 표면보다는 시추를 동반한 탐사가 강조됨³⁾
- 미국의 달 자원개발은 아르테미스 3호 유인탐사 임무 이후에 미국 산업체가 주도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며 현지 자원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단계로 전환이 시작됨
 - 구체적으로 '27-'28 NASA LIFT-1(산소추출), '29 LIFT-2(ISRU, 전력, 먼지 완화, 모빌리티, 자율&로봇, 건축), '31 원자력 전력, '33 ISRU 파일럿플랜트 건설 단계로 진행

일본

- 일본의 우주항공 관련 탐사 및 연구는 2003년 설립된 일본 문부과학성 소관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⁴⁾
 - 일본의 달 자원개발 현황은 2007년 9월 처음으로 달에 궤도선인 '가구야'를 보냈으며, 2024년 1월 일본 착륙선('슬림')은 뒤집혀 착륙하였지만, 목표 지점 55m 내 착륙하여 정밀 착륙에 대한 목적 달성

3) 자원 확인 프로그램(물 조사: '24년 바이퍼 미션, '24년 프라임-1)

4) 기존의 일본 우주과학연구소,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우주개발사업단 3개가 통합

| 그림 2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달 탐사선('슬림')



자료: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 일본은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달 자원개발 추진 중

-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달 자원플랜트 관련 사전연구 시작하여 달 표면 얼음에서 수소와 산소를 확보해 공급하고, 2040년에는 달에서 지속가능한 탐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4년 일본은 미국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우주정거장 활동 우주인으로 참여하는 것과 월면차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주협력을 확대⁵⁾

중국

■ 중국은 국가항천국(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CNSA)을 중심으로 우주 관련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7년 10월 창어-1호 프로그램으로 달 궤도 진입에 처음 성공하였고, 2010년 창어-2호(궤도선), 착륙선(2013년 창어-3호, 2014년 창어-4호(남극지역)) 임무를 성공, 2020년 11월 창어-5호는 시료(1.72 kg) 채집 후 귀환에 성공함.

■ 중국은 자체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달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26년 창어-7호는 달 남극에서 자원탐사 임무 수행
- 2028년 현지자원 개발과 활용을 실증(착륙선, 로버, 비행 관측, 현지자원 활용으로 빌딩을 짓기 위한 3D-프린팅 실험)
- 2030년 달 남극에 국제협력으로 전초기지 건설 및 유인 탐사
- 2035년 러시아와 달기지 건설/기타 국가 협력 초청, 달 핵발전소 건설 등

5) 미국 항공우주국 홈페이지(<https://www.nasa.gov/news-release/nasa-japan-advance-space-cooperation-sign-agreement-for-lunar-rover/>)

3 달-화성 진출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미래 준비

우리나라의 초기 달 자원개발 현황 및 정부 계획

- 우리나라는 2024년 5월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KASA)이 우주·항공 분야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
- 2032년 달 착륙선 개발 및 발사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
 - '16~'24 “극한건설 환경 구현 인프라 및 TRL6 이상급 극한건설 핵심기술개발”, '23~'25 “유인 우주기지 건설 핵심기술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3~'27 “달 감마선분광기 활용 및 달 자원 활용 핵심기술개발”, '25~'30 “달 남극 자원 추출 핵심기술개발”(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현재 실험실 환경에서의 기초연구와 요소/핵심기술 개발 수행
 - 우주용 초소형 원자로 개념설계, '30년대 우주원자로 개발(한국원자력연구원)
- 정부는 2022년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으로 2032년 달 착륙선, 2035년 화성궤도, 2045년 화성 착륙선 성공을 설정⁶⁾
 - 2030년대 무인우주 수송, 2030년 클러스터구축(제조산업 집적), 2032년 차세대발사체 개발, 2040년대 정지궤도 유인 발사장 구축, 2050년대 유인수송체계완성 등

국제협력 프로그램 적극적 참여 필요

- 우리나라 달 자원개발 역량 강화 및 자원개발 주권확보를 위해서는 우주탐사 기술 강국과의 국제협력이 중요
 - 미국항공우주국의 프로그램을 미국 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할 예정으로 국제협력 파트너의 참여가 가능
 - ※ '27(NASA LIFT-1(Lunar Infrastructure Fundamental Technology-1), 산소 추출 실증), '29(NASA LIFT-2, Pilot Pre-cursor), '31(핵분열 표면전력 데모), '33(ISRU(In-Situ Resource Utilization) Pilot Plant) 등 참여 추진 필요
 - 초기 참여가 장기적인 달 남극기지 건설에 동참할 기회의 지분 확대 역할
- 달 현지자원 활용 국제협력은 한국의 독자적 자원개발과 기지 건설에 초석

6)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3~'27)

연구 및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및 입법 지원 필요

■ 연구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예산 지원이 필요

- 우리나라 우주항공 예산은 2022년 기준 7천6백억원으로 미국의 2.2%, 일본의 17.3%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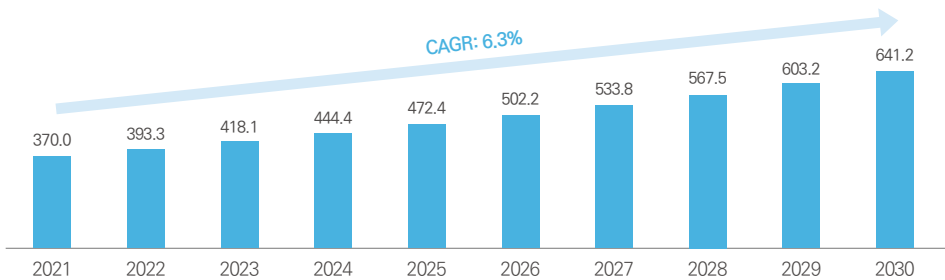
■ 우주자원개발분야 산업체 육성과 산업계·학계·연구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하였을 때 중국 83%, 일본 84%, EU 90%, 우리나라 56%로 미국과 15년 기술 격차가 존재
- 전 세계 우주 경제 분야는 2022년 기준 연평균 6.3%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산업을 더욱 발전 시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전 세계 달-지구-화성 우주 경제 시대에 부응하여 장기적인 우주자원 개발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 수립과 입법 지원 필요

- 우주자원의 개발 주체, 권리, 소유권 등 국제적 요구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⁷⁾

[그림 3]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와 성장 전망(십억 달러)



자료: Klecha&Co, "Space Economy: Lift-off into the final frontier," 2022.

달-화성 현지자원 활용이 열여가는 인류의 미래

■ 우리나라도 극한 우주 환경인 달 표면에서 생존 기술을 입증 후 화성 진출이 가능

- 달-화성 진출은 현 인류 공동 목표이므로 평화적 참여와 권리 공유를 기반한 국가 주도의 국제협력 수행이 적합
 - ※ 우리나라 기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에너지 등 분야 국제협력 검토 필요
- 기술기반의 국제협력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독자적인 달-화성 진출을 위한 원천기술, 자원개발 주권, 영역, 국제적 지위, 자원 등에 대한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달, 화성, 소행성은 탐사 시대에서 자원개발·활용 시대로 진입했고, 우주 경제의 기반으로 현실화돼 가고 있음

- 달 자원 활용 시대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

7) 관련 법령: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제7조 3항),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 관한 사항(제7조 10항), 우주개발 진흥법 중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수립(제5조),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활용에 관한 사항(12항) 등

경제 현안

한국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피용자보수 관계

“경제 현안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피용자보수¹⁾ 관계

경제분석국 | 진익 경제분석국장(02-6788-3779)

1 베이비붐²⁾ 세대의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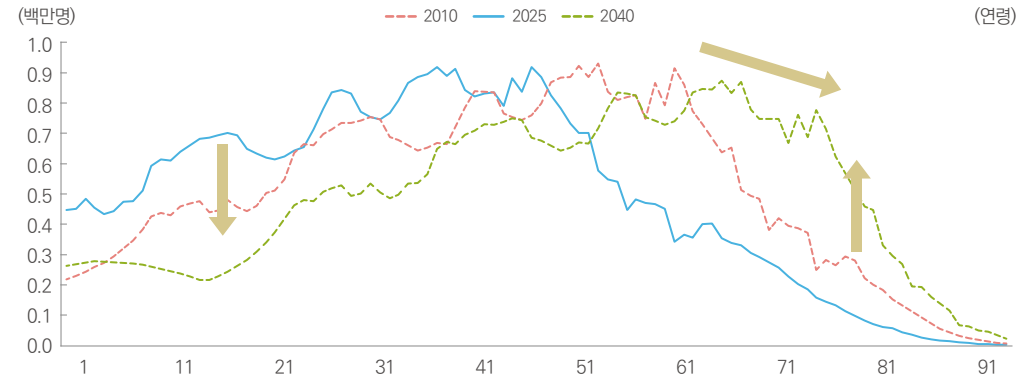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1차: 1955~1963년생, 2차: 1968~1974년생)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서 연령별 인구 곡선의 정점에 위치함
 - 통계청이 2013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1세별 인구 곡선을 그리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남
- 연령별 인구 곡선의 이동 양상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위치한 곡선의 정점이 우하방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도 정점과 저점이 반복되는 파동이 나타남
 - 2025년을 기준으로 15년 전(2010년)과 15년 후(2040년)의 연령별 인구구조 곡선을 비교 시, 10~20대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70~80대 인구는 증가

1) 피용자보수는 임금 또는 임금근로자들이 받는 주거서비스, 건강·보건비용, 보육지원금 등 복지비용을 포함함. 국회예산정책처, 2024, 「2024년 경제전망 III-소득부문」을 참조함

2) 베이비붐은 특정시기에 출생률이 급증하여 출생아수가 폭증하는 상황을 지칭하며, 6·25 전쟁 직후 시기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로 1차와 2차를 구분함.

| 그림 1 |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베이비붐 세대(1차: 61~69세, 2차: 50~56세)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

■ 향후 10년 동안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실효 은퇴 연령을, 2차 베이비붐 세대는 공식 정년퇴직 연령을 넘어서게 될 예정

- 한국의 공식 정년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2022년 기준 평균 실효 은퇴 연령(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나이)은 남성 65.4세, 여성 67.4세임³⁾

3)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을 참조함.

2 ▶ 피용자보수비율 하락 가능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면서 경제전반의 활력이 점차 둔화될 위험 증가

-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인구 보너스(bonus) 시대를 마감하고 인구 오너스(onus) 시대로 전환⁴⁾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전과제들에 직면⁵⁾
 - (노동 공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공급의 감소를 수반하지만 해당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경향이 심화되면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재정) 피용자보수에 연동된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공적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 (자산 수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전에 축적했었던 저축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노후소득을 마련하고자 보유하던 금융·부동산 자산을 매도할 수 있음
 - (소비) 고령층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관련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음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피용자보수(근로자의 급여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피용자보수는 한 국가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분배되는 임금과 급여, 부가급부 등을 의미함⁶⁾
 - 2022년 피용자보수는 1,030조원으로 명목GDP의 47.6%를 차지함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일차적으로 노동공급과 피용자보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동 세대가 은퇴연령 이후에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기간, 이후 세대의 노동생산성 변화, 평균임금 변화 등에 따라 피용자보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이차적으로 이전·자산소득, 소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자산 등의 여건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동 세대의 은퇴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임
 -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보유 자산 매각, 소비 위축, 이전소득 의존도 심화 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음

4)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확대되고 그에 기초한 경제성장이 다시 인구 증가를 유발하던 선순환(인구 보너스)이, 생산연령인구 감소, 노동 공급 감소,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 심화 사이의 악순환(인구 오너스)으로 전환될 위험이 큼. 국회예산정책처, 2020,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I」을 참조함.

5) 한국은행, 2016,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을 참조함.

6) 국회예산정책처, 2024, 「2024년 경제전망 III-소득부문」을 참조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됨에 따라 피용자보수에서 나타날 영향을 추정

-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사이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은닉층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여 심층학습(deep learning) 신경망 모델을 추정⁷⁾**
 - 입력층에서 연령별 인구 변화율을 입력 변수(80개)로, 출력층에서 국민계정(지출, 생산, 소득) 항목 변화율을 출력 변수(41개)로 설정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인구 자료와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

| 표 1 | 심층학습 신경망 분석 관련 가정

구 분	내 용
모형 학습 기간	1971~2022년 (52개년)
피용자 보수 추정 기간	2028~2040년 (13개년)
입력 변수	연령별(1세~80세) 인구 변화율 (80개)
출력 변수	지출, 생산, 소득 국민소득 변수 변화율 (41개)
추정 모형 수	100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총생산 대비 피용자보수 비율이 하락할 수 있음

- **2025년 전후 31개년(2010~2040년) 동안의 피용자보수 비율의 추이를 확인함**
 - 아래 그림에서 2010~2022년은 실적값을, 2023~2027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값을,⁸⁾ 2028~2040년은 심층학습 신경망을 이용한 추정값을 보여줌
 - 2010~2040년 동안의 피용자보수 비율을 산정하고, 해당 비율에 HP-필터 (Hodrick-Prescott filter)를 적용하여 분석기간 동안 나타날 변화 추세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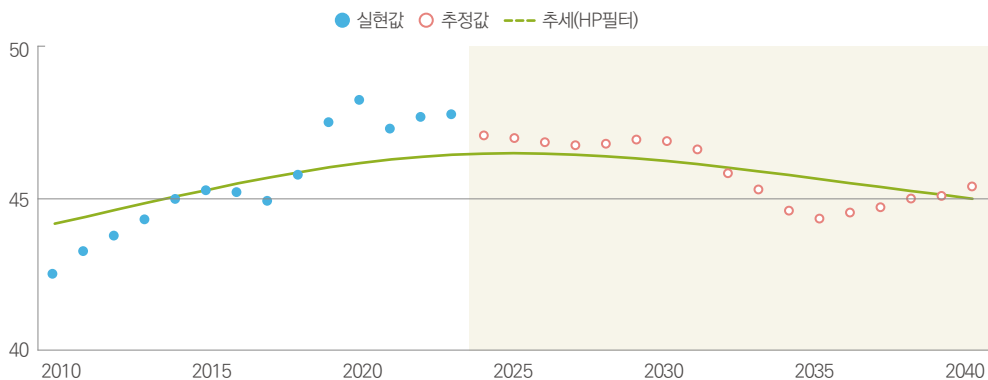
7) 심층학습은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구축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한 분야임. 관측값 수가 적은 거시경제변수에 신경망 모델을 적용함에 따라 과적합(over-fitting)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기법(regularization, drop-out)을 적용하고 다수의 모형을 추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과제 보고서 「딥러닝(Deep Learning) 방법론을 활용한 GDP 예측모형 연구」를 참조함.

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I-소득부문」과 「2024년 경제전망 III-소득부문」에 제시된 명목 피용자보수 변화율에서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지출부문」과 「2024년 경제전망 I-지출부문」에 제시된 GDP디플레이터 변화율을 차감하여 사용함.

■ 기존 상승 추세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진행 과정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음

-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경제 주요 변수 사이에서 과거에 성립하였던 상관성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암묵적 가정을 전제로 한 결과임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국내총생산 성장 둔화에 비해 피용자보수 증가 둔화가 더욱 크게 나타남에 따라 피용자보수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서 나타날 노동생산성 변화, 평균임금 변화, 신규 노동공급 변화, 자동화 심화 등에 따라 피용자보수 비율 하락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그림 2 | 국내총생산 대비 피용자보수 비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시사점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피용자보수 비율 하락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안 필요

- 한국 사회에서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면, 은퇴 후 인구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위험이 존재함
 - 분석결과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국내총생산 대비 피용자보수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가계 소비, 재정 운용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행태변화가 클수록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수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 대응 방안 필요
 - 정년연장을 비롯한 고령층 고용 촉진,⁹⁾ 여성·외국인 고용 확대
 - 노동생산성 개선과 그에 연동한 근로소득의 안정적 상승 지원
 - 고령층의 금융·부동산 자산 매각을 고려한 자산시장 충격 위험 관리¹⁰⁾
 - 복합적 과제(고령층 노후소득 보장, 공적 안전망 재정건전성, 이후 세대의 부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안전망(사회보험)과 사적 안전망(민영보험) 연계 강화
 - 고령층 증가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상품·서비스(예, 건강관리, 의료, 사회복지 등)의 공급 확대, 관련 산업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9) 정년연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4,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Ⅵ. 고용: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에서 검토함.

10)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부동산 자산 매각 시점이 향후 경제 환경에 따라 지연되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한국은행 2016,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CBO 2009, “Will the Demand for Assets Fall When the Baby Boomers Retire?” 등을 참조함.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4년 6월호 통권 제43호

발행일 2024년 6월 26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5-002038-07
ISSN	2950-922X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